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결과 세미나**

2015. 4.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 순

P · R · O · G · R · A · M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5층 518호)

▣ 일시: 2015년 4월 28일(화) 오후 2~4시

| 시 간 | 내 용 |
|-------------|---|
| 13:40~14:00 | 등록 |
| 14:00~15:00 | 좌 장 :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실장) 발표 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의 개요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3: 미혼자의 만혼화 특성과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행태 박중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15:00~16:00 | 지정토론 및 지역추적조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 김태헌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형수 (호서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전광희 (충남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개요

오 영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¹⁾의 개요

제1절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1년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되어 정부 및 지자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만혼화 추세 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고령사회 도래 등에 대응한 3차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1명으로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통계청, 2015). 한편 의료기술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13년 출생아(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출생 시 기대여명)은 81.9년이고, 남자의 기대수명은 78.5년, 여자는 85.1년이고,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2013년 기준 60세 남자와 여자는 각각 22.0년, 27.0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14).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즉, 출산율 및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낮은 지역은 역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및 고령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이 특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단위의 접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특정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잣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적 정책 실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노인실태조사가 각각 매 3년 주기의 전국적 표본으

1) 본 연구의 2015년도 연구진은 오영희·정경희·박종서·김경래·오신휘·임지영임.

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또는 고령사회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가 모두 횡단적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어, 매 조사마다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포착하는 데 문제가 있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²⁾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출산, 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 및 노인복지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조사표본지역은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조사가 아닌 사례조사의 형태를 가지기는 하지만, 사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반복추적한다는 측면에서 패널조사(panel survey)의 특성이 있다.

조사지역 선정의 기본방향은 본 조사가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체계 구축임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활한 추적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시도 지역을 안배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노인인구비율이 각각 중위수(median)의 $\pm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자체를 추출하였고, 농촌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화 수준 및 지속적인 조사협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선정하였다. 지자체 내의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공무원, 통(리)는 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규모, 인구 이동, 지역적 특성, 조사협조 가능성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조사지역은 서울 성북구 정릉3동(수도권), 충북 충주시 소태면(중부권), 전북 익산시 영등2동(남부권)이다. 조사가구는 생활권 위주로 선정하고, 가구수가 적어 1

2) 본 연구에서 동태적 분석이란 인구학적 의미에서 확장된 개인 삶의 변화 과정에서의 적응 모습, 역할 변화, 기능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

개 통리로 300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근 몇 개 생활권을 묶어서 선정(1개 통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가구수가 적을 경우 인근 통리 지역을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은 3개 조사 지역에서 각각 3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만20~49세), 기혼여성(만15~49세), 중고령자(만5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은 2일간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였고,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4명으로 1개 팀을 편성하여 각 조사지역별 2개 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가구조사 와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미혼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일정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자기기입으로 작성하고,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여 부족한 내용은 전화 확인 등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조사주기는 기본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격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조사종류 및 조사주기 구분

| 조사 내용 | | 조사주기 | |
|---------|---------------|----------------|-------|
| 가구 일반사항 | 저출산분야(기본조사) | 고령사회분야(기본조사) | 매년 조사 |
| | 저출산분야(부가조사) | 고령사회분야(부가조사) | 격년 주기 |
| | 저출산분야(심층사례연구) | 고령사회분야(심층사례연구) | 격년 주기 |

(홀수 연도)

(짝수 연도)

2013년도는 지역추적조사의 첫 회기로 원표본가구 구축과 기본조사를 2013년 7월 11일~8월 15일에 실시하였고, 12월에 추가적으로 표본유지 및 관리를 위한 조사를 1회 실시하였다.

2014년도 제2차 현장조사는 2014년 4월 23일~5월 14일에 실시하였고, 12월에 표본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출산분야는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고령사회분야는 기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령, 경제상태, 취업상태 등의 특성

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2015년도 제3차 현장조사는 2015년 6~7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고령사회분야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저출산분야는 기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실시하며, '미혼자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가정보육 자원이용 행태'에 대하여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4. 조사내용

가구조사는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가구 경제상태에 관한 내용이고, 각 개인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노후준비, 건강상태, 지역사회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연령대별 특화된 주제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미혼자조사에서는 직업력, 현재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이성교제 및 결혼관, 생식보건 관련 사항, 정책 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기혼여성조사는 직업력, 노후준비, 결혼력, 임신력, 자녀양육, 남편의 가사육아 지원, 부모 지원, 기타 친인척 및 비혈연자 지원, 직장요인, 지역사회인프라, 지역문화, 보육관련 정책 수혜 및 만족 정도 등을 알아보았다.

중고령자조사는 중고령자의 자녀 사항,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가구 형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노후준비, 지역사회와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이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간병수발과 기초연금 수혜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는 격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주요 이슈, 또는 관련 문헌 고찰 등으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주요 주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려는 맥락에서 실시되었다(표 2 참조).

2014년도 중고령자의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는 일상생활(함께 하는 활동), 가사노동 및 돌봄의 공유 및 교환, 감정적 유대 및 지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 양가제로의 변화 정도, 문화여가활동의 공유 여부, 사회적 연계망의 공통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15년도 저출산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의 내용은 미혼자의 경우 이성교제 관련 사항, 동거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설계하였고, 기혼여성의 양육행태에 대한 조사내용은 자녀보육 형태, 돌봄 지원 여부 및 관련 사항, 취업관련 사항, 추가출산 의지와 출산 결정 및 포기에 대한 이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기본 조사내용

| 영역 | 저출산 분야 | | 고령사회 분야 |
|--------------|---|--|--|
| | 미혼 남녀(20~49세) | 기혼 여성(15~49세) | 중고령 남녀(50세 이상) |
| 가구특성 (공통) | -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직업, 종교, 등록 장애인 여부 - 가구 경제상태: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및 부담되는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소득 항목별 소득 유무 및 연간 소득 금액, 주택 소유형태 및 주택 가격 - 가구원 변동사항: 신규분가사망 가구원 수 및 변동 이유 | | |
| 개인특성 (공통) |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 (변화) 학력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 개인 특성 - (변화) 경제활동 및 직업 |
| 가족관계 | - 부모와의 관계 • (변화) 거주거리 • (변화) 경제적 도움 | - 자녀 일반 사항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 자녀와의 관계 • (변화) 자녀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배우자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부모 특성 • (변화) 부양 교환 - 형제·자매수 |
| 노후준비 | - |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 -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 및 준비금 |
| 건강상태 | - 흡연·음주 및 생식보건 관련 검진 | - 생식보건 관련 검진 | - (변화)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 연령대별 특화된 주제 | 〈결혼 등 미래 설계〉 - 이성교제 여부 - 결혼에 대한 전망 | 〈임신 및 출산〉 - 결혼력 - 임신·출산력 - 자녀관 〈자녀 양육〉 - 이용 시설 및 서비스 - 양육 비용 및 시간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여부 〈가족 지원 사항〉 - 가사 및 육아 지원 사항 〈직장 요인〉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 | 〈5년 내 변화〉 - 경제 활동 및 경제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 -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 친구 이웃 〈여가문화활동〉 - 여행, 평생교육 - 컴퓨터 및 핸드폰 이용 정도 - 기타여가문화 활동 - 자원봉사활동 〈65세 이상 노인〉 - 기능상태 및 가족수발 |
| 지역사회요인 | - | - 보육관련 인프라 접근성 및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 - 여가시설 및 보건소 접근성, 이용 만족도 - 현거주지 만족도 |
| 정책요인 | - 결혼관련 정책의 인지도 | - 임신·출산·보육 관련 정책의 수혜 정도 | - 기초연금 수혜 여부 (65세 이상 노인) |

자료: 오영희 외(20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표 2〉 저출산 및 고령사회분야 심층사례연구를 위한 주제 탐색

| 영역 | | 고령사회 분야 |
|--------------------|--------------|---|
| 저출산 분야 | | |
| 가족주기 | 미혼자의 가족 형성 | - 주거독립 영향요인 분석 - 만혼화와 영향요인 분석 - 이성교제와 성의식 |
| | 임신과 출산 | - 임신력 - 난임력 - 피임실패 |
| | 자녀양육 | - 일·가정 양립실패와 제도 활용도 - 경제활동 특성과 출산 및 양육 - 가정보육실패 및 비공식적 자원활용 실패 |
| | 가족주기 | -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 |
| 가족구성 | | - 가사분담 - 가족구성과 동거형태 |
| 지역사회 | 지역사회구조 | - 자원의 배분과 접근성 - 정책적 지원, 공동체적 지원 - 사회적 자본 - 산업구조와 일자리 가용성 |
| | 지역문화와 개인의 의식 | -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 공동체와 지역 정체성 |
| 개인의 문화적 배경 | | - 가치관의 형성과 변화 |
| 경제활동 | | - 여성경제활동 특성, 일가족양립 특성 |
| 고령사회 분야 | | |
| 자녀 등 가족관계 | | - 확대가족-수정확대-핵가족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 자녀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차이가 있는가? 세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대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 부양의 교환실패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중고령자에게 있어 배우자란?: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2014) - 다세대(bean pole family)의 실제 현황은? - 얼마나 어떤 형태로 샌드위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
| 사회적 관계망 | | - 연계망의 크기와 특성 비교: 1차 조사자료의 심층분석(2014) - 사회적 관계망의 동질성: 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 가치관, 정보교환 등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
|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 | | - 중고령자의 직업력, 은퇴에 관한 연구 -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과정의 탐색 |
| 건강 및 지역사회자원 | | -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인의 간병수발 실패 - 여가문화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 |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5. 현장조사 결과

2014년 지역추적조사(II)에서는 901가구를 조사완료하였다. 가구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은 84.9%(765가구)이고, 신규진입가구는 15.1%(136가구)로 나타났다. 도시지역(80%)에 비하여 농촌지역(94%)에서 표본유지율이 더 높았고, 대도시인 정릉3동은 미혼자조사의 사례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반면, 중소도시인 영등2동은 기혼여성조사 사례수가 많고, 농촌지역인 소태면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사례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원표본가구에 주소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 동·면으로의 이동이면 그 가구는 계속 추적을 하고, 타 동·면으로 이동하여 지역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거처에 이사 온 가구를 신규 조사가 구로 투입하여 조사지역별 300가구씩 표본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표 3 참조).

〈표 3〉 2014년 지역추적조사(II) 현장조사 결과

(단위: 명, %)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전체 |
|----------------------|----------|----------|---------|--------|
| 2013년(제1차) 조사완료수 | | | | |
| 가구조사 | 300 | 301 | 300 | 901 |
| 개인조사 | | | | |
| 20~49세 미혼자조사 | 62 | 29 | 32 | 123 |
| 15~49세 기혼여성조사 | 94 | 245 | 42 | 381 |
| 50세 이상 중고령자조사 | 339 | 94 | 481 | 914 |
| 2014년(제2차) 조사완료수 | | | | |
| 가구조사 | 300 | 301 | 300 | 901 |
| 원표본가구 | 241 | 241 | 283 | 765 |
| (표본유지율: %) | (80.3) | (80.1) | (94.3) | (84.9) |
| 신규진입가구 ¹⁾ | 59 | 60 | 17 | 136 |
| 개인조사 | | | | |
| 20~49세 미혼자조사 | 84 | 30 | 25 | 138 |
| 15~49세 기혼여성조사 | 101 | 237 | 35 | 373 |
| 50세 이상 중고령자조사 | 321 | 112 | 491 | 924 |

주: 1) 신규 진입가구: 응답거부, 전출(조사지역 이외 동·면), 장기출타 등으로 탈락한 가구를 동일 조사지역(동·리 단위)에서 대체함.

2) 개인조사 표본유지율: 미혼자조사(62.6%, 123명중 77명 유지), 기혼여성조사(78.0%, 381명중 297명 유지), 중고령자조사(84.0%, 938명중 788명 유지)

3) 조사지역별 30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익산시 영등2동은 한 가구를 초과하여 조사 완료함.

6. 자료 처리 및 분석

조사원에 의해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에 대하여 지역별 지도원에 의하여 1차 에디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로직 체크 및 무응답 검토 등으로 해당 조사지역에서 재방문 또는 유무선을 통한 보완 및 수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완료 후 2차 에디팅을 통하여 통일된 지침에 의한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문항응답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전산입력 이전에 개인별 패널아이디 부여 작업을 실시하고, 전산입력 후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과정과 개별 조사표 간 관련 항목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기본데이터는 결과 분석이 가능한 작업파일로 생성되어, SPSS 또는 SAS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전국 표본조사가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어 3개 지역 전체(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항 분석에서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는 일차적으로 백분율(빈도)과 교차분석 중심으로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였다.

7. 사후관리

적극적·체계적 표본관리를 통하여 패널의 지속성 유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표본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12월에 각각 지역별 2명의 조사원이 원표본가구를 재방문하여 가구의 주소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차기년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표본가구에 주소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일 동면으로의 이동이면 그 가구는 계속 추적을 하고, 타 동면으로 이동하여 지역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거처에 이사 온 가구를 신규 조사가구로 투입하여 사례지역별 300가구씩 표본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표 4〉 2015년 지역추적조사(Ⅱ) 사전조사 결과(2014.12월)

(단위: 가구, %)

| 지역 | 2014년 조사가구 | 2015년 사전조사 완료가구 | 2015년 사전조사 미완 | | | | | | 2014년 표본 유지율 | 신규진입 가구 | 최종 완료가구 |
|----------|---------------|-----------------------|---------------|-----------|----------|----------|----|----|--------------------|------------|------------|
| | | | 장기 출타 | 권역외 이사 | 사망 빈집 | 이사 빈집 | 거부 | 총계 | | | |
| 성북구 정릉3동 | 300 | 272 | 2 | 4 | 0 | 4 | 18 | 28 | 90.6 | 6 | 278 |
| 익산시 영등2동 | 301 | 276 | 3 | 10 | 0 | 1 | 11 | 25 | 91.7 | 9 | 285 |
| 충주시 소태면 | 300 | 292 | 2 | 4 | 1 | 0 | 1 | 8 | 97.3 | 2 | 294 |
| 전체 | 901 | 840 | 7 | 18 | 1 | 5 | 30 | 61 | 93.2 | 17 | 857 |

제2절 조사지역 기초자료의 비교분석

1. 지역환경 및 인구학적 특성 비교

조사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구릉지 지형으로 넓은 녹지와 산지가 많은 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과 빌라·연립주택 등이 존재하고,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산업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보건·복지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74.4%로 높은 수준이고, 65세 인구의 비율이 14.9%인 지역으로 인구자연증가는 적은 지역이다(표 5 참조).

익산시 영등2동은 중소도시 대규모 아파트 지역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이 많고, 보건·복지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해당 시·군·구 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69.5%이고, 0~14세 아동의 비율이 25.2%이며,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인구자연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산지가 많고 리·마을이 분산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이다. 농촌지역에서 제조업종사자가 많은 것은 대부분 개개인의 농가운영형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는 0~14세 비율이 7.4%로 매우 낮은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33.1%로 초고령화 지역이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많은 편이나 보육시설이나 병(의)원 등 각종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정책 추진환경 및 응답가구 특성 비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환경에서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성북구가 30.5%, 익산시 20.7%, 충주시 18.8%로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은 대도시지역인 성북구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해당 광역 시·도 내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자원조달구조가 모두 취약한 수준이다(표 6 참조).

한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예산규모로 살펴보면 성북구(4,185억원)가 익산시(7,341억원), 충주시(5,980억원)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익산시(2,605억원)가 성북구(2,142억원), 충주시(1,663억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출생아수, 노인인구수 등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주 수혜계층의 많고 적음이 반영된 것으로, 익산시는 노인인구수가 3개 조

사지역 중 중위에 해당하지만,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대책의 영향이 세출예산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풀이되었다.

〈표 5〉 조사지역의 환경적·인구학적 특성 비교 분석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지리적 특성 | | | |
| 지형 및 주거 형태 | 구릉지 지형으로 넓은 녹지와 산지가 많은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 | 도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지역으로 주변에 상권이 발달한 지역 | 산지가 많고 리·마을이 분산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단독주택 |
| 행정 단위 | 24개 통 | 24개 통 | 행정리 21개 (법정리 9개) |
| 산업적 특성 | | | |
| 산업적 특성 |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협화·단체수리·기타, 제조업(주로 개인농가 운영) |
| 보건·복지 관련 시설수(해당 시군구내 기관수) | | | |
| 보육시설 | 9 | 24 | 0 |
| 경로당 | 4 | 6 | 21 |
| 노인교실 | 0 | 2 | 0 |
| 병(의)원 | 8 | 4 | 0 |
| 보건(지·진료)소 | 0 | 0 | 2 |
| 노인주거복지시설 | (2) | (3) | (8) |
| 노인의료복지시설 | (14) | (40) | (32) |
| 노인재가복지시설 | (11) | (26) | (4) |
| 노인복지관 | (1) | (1) | (1) |
| 인구 특성(조사지역 동·면) | | | |
| 총인구수(명) | 18,502 | 16,838 | 2,064 |
| 세대수(가구) | 7,889 | 5,523 | 942 |
| 연령구조(%) | | | |
| 0~14세 | 10.7 | 25.2 | 7.4 |
| 15~64세 | 74.4 | 69.5 | 59.6 |
| 65세 이상 | 14.9 | 5.3 | 33.1 |
| 인구통태(명) | | | |
| 출생건수 | 111 | 218 | 8 |
| 사망건수 | 75 | 41 | 31 |
| 자연증가 건수 | 36 | 177 | -23 |

자료: 오영희 외(20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지역별 가구조사 결과에 따른 비교분석으로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성북구 정릉3동 57.3%, 익산시 영등2동 80.4%)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21.7%)은 낮은 수준이다. 동거가구원 평균 연령은 성북구 정릉3동 42.5세, 익산시 영등2동 29.7세, 충주시 소태면 57.9세로 익산시 영등2동이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다.

가구 경제수준을 비교하면 2013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42.6%이고, 익산시 영등2동은 13.1%, 충주시 소태면은 58.6%이다. 또한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 61.6%, 익산시 영등2동 14.6%, 충주시 소태면은 77.0%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익산시 영등2동(16.0%)이 충주시 소태면(34.0%), 성북구 정릉3동(56.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택의 자가소유율은 성북구 정릉3동이 52.7%이고, 익산시 영등2동과 충주시 소태면 자가소유율이 86% 이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인 익산시 영등2동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고, 충주시 소태면은 고령화율이 높고 가구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나 자가소유율이 높고, 주관적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6〉 조사지역별 정책추진 환경 및 응답가구 특성 비교

(단위: %, 억원, 명, 세, 가구)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조사지역 해당 시·군·구 정책추진 환경 | | | |
| 재정자립도(2013년) | 30.5 | 20.7 | 18.8 |
| 일반회계 세입예산(2014년, 억원) | 4,185 | 7,341 | 5,980 |
|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2014년, 억원) | 2,142 | 2,605 | 1,663 |
| 지자체 자체재원에 의한 독자적 사업수 | | | |
| 저출산분야 | 21개 | 10개 | 5개 |
| 고령사회분야 | 15개 | 8개 | 20개 |
| 인구 특성(2012년) | | | |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2.0 | 13.8 | 15.2 |
|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 1.0 | 1.4 | 1.3 |
| 조사지역 해당 동·읍·면(2012년) | | | |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4.9 | 5.3 | 33.1 |
| 출생건수(명) | 111 | 218 | 8 |
| 응답가구의 구조적 특성 | | | |
| 자녀동거가구 비율 | 57.3 | 80.4 | 21.7 |
| 동거 가구원수(평균, 명) | 2.7 | 3.5 | 2.2 |
| 동거가구원 연령(평균, 세) | 42.5 | 29.7 | 57.9 |
| 응답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 | |
| 가구 소득종류별 소득원 | | | |
| 근로소득률 | 74.3 | 78.4 | 29.0 |
| 사업소득률 | 19.3 | 27.2 | 80.3 |
| 월평균 가구소득(200만원 미만) | 42.6 | 13.1 | 58.6 |
|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200만원 미만) | 61.6 | 14.6 | 77.0 |
| 주관적 생활수준(낮은 편이다) | 56.0 | 16.0 | 34.0 |
| 주택 소유율(자가) | 52.7 | 86.4 | 87.7 |
| (조사가구 수) | (300) | (301) | (300) |

자료: 오영희 외(201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정릉3동, 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및 계획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는 2013년도에 시작되어 종단적 조사방법(longitudinal research)으로써 지역단위 사례조사체계를 구축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양적 분석은 5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패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원표본가구에 대한 기본조사가 2회 실시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가 1회 실시되었고, 2015년도에는 미혼자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양육행태에 대한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고령자 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의 50세 이상 전체가 개인조사대상으로 응답자 수가 예상보다 많았으나, 미혼자 및 기혼여성 응답자 수는 조사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빈도분석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족한 실정으로, 기본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방안의 제시보다는 조사지역의 특성 및 응답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본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특성, 계층 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고 소규모 표집집단을 재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심층사례면접으로 질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정책과제의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규모 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결혼 및 출산 행태, 노화 현상으로의 이행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환경생태학적 요인을 고려한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고, 개인 삶의 변화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명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사례연구 방법의 수정·보완으로 사회 현상과 관련된 선도적 주제의 탐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7 참조).

〈표 7〉 향후 심층사례연구의 수정·보완 방안(안)

| 구분 | 기존 질적자료 수집방법(1안) | 질적자료 수집방법의 수정·보완(2안) |
|-------|---|--|
| 연구 비중 | - 양적·질적 연구의 비중이 거의 동등 | -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의 비중 확대 |
| 연구 순차 | - 양적자료를 수집하고,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면접 실시 - 양적자료와 질적자료의 수집시기가 거의 동 시적 실시 | - 순차적 질적자료 수집으로 1년에 2회 이상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관찰 또는 주변인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 |
| 연구 주제 | - 격년을 주기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주요 이슈 선정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 가능 [예시] · 2014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 2015년 미혼자의 결혼 의향, 기혼여성의 양육행태 · 2016년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이용 행태 · 2017년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 | - 연구대상과 증점탐구 주제의 선정 필요 - 질적 추적조사 가능 [예시] · 미혼의 데이팅부터 결혼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 부부의 출산 결정과정과 영향요인 파악 ·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인 자녀양육 패턴 이해 · 고령자의 기능상태 저하 과정 · 고령자의 퇴직과정이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과정 |
| 장단점 | - 단순화·수량화된 응답의 한계 보완 - 연구자가 현장을 한번 정도 방문함으로써 시간, 예산 등이 절감 - 인터뷰 대상자가 매년 변경되어 대상자와 라포 형성이 제한적 | - 조사주제와 관련된 실제적 현실의 맥락, 배경, 과정 등을 동태적 차원으로 파악 - 연구자가 현장을 여러번 방문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연구진 수, 소요예산) 등 추가 필요 |

지역추적조사는 패널조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 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가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구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은 약 85%이나 개인조사에서 미혼자조사의 경우 표본 유지율이 약 65%로 다른 조사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어서 표본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비표본오차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적 문항의 경우 연도별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표의 설계 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원 교육 등으로 면접자의 측정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지역이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지 않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communitiy)에 한정되어 자료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고, 표본가구 또는 개인을 전국으로 추적하는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고 지역표본(동·읍·면)에 대한 추적조사로 수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정책과제 발굴이나 생애주기상의 급변하는 단계(결혼 및 출산, 은퇴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발표 2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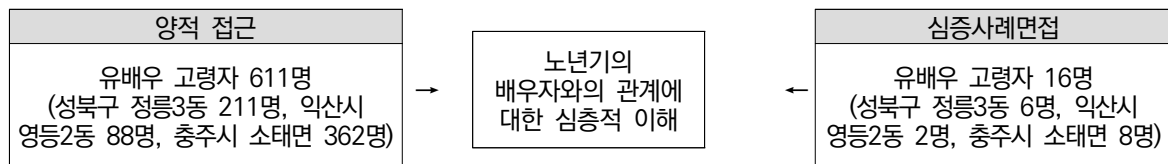
제1절 개요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부중심 사고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자 생활하는 거주유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노인층인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관계로 78.4%가 배우자를 언급한 바 있으며, 93.2%가 혼자 또는 배우자만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1. 연구 진행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매년 배우자의 건강과 동반외출 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배우자관련 항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조사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그림 1 참조). 이는 장기적인 심층주제에 기초하여 볼 때, 배우자와의 관계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 없이도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한 주제이며,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종합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연구 진행도



부가조사의 성격으로 중고령자(만5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배우 고령자인 총 661명(성북구 정릉3동 211명, 익산시 영등2동 88명, 충주시 소태면 362명)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심층면접은 총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세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

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사지역뿐만 아니라 연령군별 (50~64세군, 65~74세군, 75세 이상군)로 자녀 동거 여부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례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도 조사 설문결과 나타난 중고령자의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의 구성이 다양하도록 선정하였다.³⁾ 구체적인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지역별 심층사례연구 대상자의 제특성

| 지역 | 연령 | 사례 | 성 | 가구형태 | 경제상태 | 부부 건강상태 | 자녀 | 비고 |
|-------------|------------------|------|----|------|------|----------------|------|--------------------|
| 성북구 정릉3동 | 중년층 (50~64세) | 사례1 | 여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건강한 편 | 1남1녀 | 맞벌이 주말부부 |
| | | 사례2 | 남자 | 자녀동거 | 중산층 | 건강한 편 | 1녀 | |
| | 전기노인 (65~74세) | 사례3 | 여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아내 건강 나쁨 | 2남1녀 | |
| | | 사례4 | 여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아내 건강 나쁨 | 1남1녀 | |
| | | 사례5 | 여자 | 자녀동거 | 서민층 | 건강한 편 | 1남1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
| | 후기노인 (75세 이상) | 사례6 | 남자 | 부부가구 | 빈곤층 | 아내 건강 나쁨 | 1남3녀 | |
| 익산시 영등2동 | 중년층 (50~64세) | 사례7 | 남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건강한 편 | 3녀 | 2013년 조사시는 자녀동거 |
| | 후기노인 (75세 이상) | 사례8 | 남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건강한 편 | 2남3녀 | 남편 대졸 |
| 충주시 소태면 | 중년층 (50~64세) | 사례9 | 여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아내 건강 나쁨 | 2남 | |
| | | 사례10 | 남자 | 부부가구 | 중산층 | 건강한 편 | 1남1녀 | 폭 넓은 대인관계 |
| | | 사례11 | 여자 | 자녀동거 | 중산층 | 건강한 편 | 1남1녀 | |
| | 전기노인 (65~74세) | 사례12 | 여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건강한 편 | 2남1녀 | |
| | | 사례13 | 남자 | 자녀동거 | 서민층 | 아내 입원중 (당뇨) | 3남 | 다문화 가정, 며느리 가출중 |
| | 후기노인 (75세 이상) | 사례14 | 남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건강한 편 | 2남2녀 | |
| | | 사례15 | 여자 | 부부가구 | 서민층 | 남편 건강 나쁨 | 2남3녀 | 우울한 편 |
| | | 사례16 | 여자 | 자녀동거 | 중산층 | 건강한 편 | 2남3녀 | 3대 가족 |

3)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응답했는가 여부에 기초하여 부부가 모두 건강, 1인만 건강, 부부 모두 건강하지 않음 등의 기준을 활용하였고, 경제상태의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가 여부를, 비동거자녀가 동일 시군구에 살고 있는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유형화한 후 대표적인 유형으로 도출된 특성의 대상자를 인터뷰하려 노력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자가 인터뷰를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어서 유형 중 일부 유형은 인터뷰가 불가능하였음.

제특성을 반영한 예비후보 중 전화연락을 통하여 인터뷰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성북구 정릉3동에서 6명, 익산시 영등2동 2명, 충주시 소태면 8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⁴⁾ 대상자는 연령군별로는 중년층이 6명, 전기노인이 5명, 후기노인이 5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7명, 여자가 9명이다. 또한 가구형태로는 부부만 살고 있는 부부가 11명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5명이다.

심층사례연구 대상자 16명 중 6명은 부부 중 1명은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상태는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중산층이 4명, 빈곤층이 1명, 서민층이 11명이다. 사례6의 경우는 빈곤층이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이다. 또한 사례13은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정으로 며느리는 가출상태이며 혼자 남은 아들과 손자를 키우고 있는 중, 아내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다.

2. 연구 내용

질문항목 개발의 주요 주제와 심층사례연구의 주요 관심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무엇보다 먼저 가족 내에서의 부부간의 도구적인 역할분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의 배분 실태를, 배우자와의 활동의 공유 상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출빈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활동 및 모임을, 정서적 유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빈도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비 지출, 노후자금 마련 관련 계획 및 투자, 자녀의 진로 및 결혼,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및 수발 등 중년층이 당면하게 되는 주요 이슈별 부부간의 의견반영 정도를 파악하였다. 한편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갈등의 발생 빈도 및 원인을 파악하여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려고 하였다. 더불어 대화의 충분성, 부부 생활(성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고의 동질성, 배우자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파악하였다.

4) 인터뷰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연구설명서와 참여 동의서 등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표 2〉 2014년도 고령사회분야 부가조사 및 심층사례연구 내용

| 영역 | 고령사회분야(배우자와의 관계) |
|--------|--|
| 부가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공동체: 노후준비 실태(2013)+상호 논의 여부 - 일상생활: 함께 하는 활동 - 가사노동, 돌봄의 공유 및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빨래, 장보기 등의 역할분담 및 시간 - 감정적 유대 및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에서의 배우자의 중요성 • 주관적 동의 정도(대화, 생각, 부부생활, 신뢰) •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공통점 및 차이점 • 부부간의 구체적인 갈등 -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부부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방문시 의논의 주 상대 • 자녀와의 구체적인 갈등 • 자녀에 대한 부양관(부모에 대한 부양관과 비교) - 양가제로의 변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가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부양의 차이(2013)+태도 - 문화여가활동의 공유 여부: 따로 또는 같이 - 사회적 연계망의 공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 가치관: 동일 또는 차이점 |
| 심층사례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시간표: 부부 함께 및 따로 - 대화의 양, 내용, 방법 등 -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제공에서의 합의 여부 - 부부관계의 변화와 평가: 서로에게 고마운 점, 섭섭한 점 - 부부관계의 변화(회고적 관점): 생애주기별 변화 - 위기, 즐거웠던 일 등 |

제2절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

1. 부부의 일반특성

부부의 연령구성, 교육수준, 취업 및 건강실태를 비교해본 〈표 3〉에 의하면 부부가 모두 80세 이상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3.3%, 익산시 영등2동은 8.0%, 충주시 소태면은 10.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가 모두 80세를 넘는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독자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부부가 모두 무학인 비중이 있어 지역별 차이가 매우 커 충주시 소태면은 39.9%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10.1%에 불과하다. 반면 부부가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은 27.3%에 달하고 있다.

한편 부부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모두 약 1/3 정도만이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8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6.6%에 불과하여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농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세 지역 모두 부부가 모두 건강한 비율이 약 1/4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은 비율은 충주시 소태면이 가장 높은 22.6%이다.

〈표 3〉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의 특성

| (단위: %, 명) | | | | |
|---------------------------------------|----------|----------|---------|--|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연령 구성 | | | | |
| 부부 모두 중년층 (65세 미만) | 49.8 | 69.3 | 35.9 | |
| 부부 중 1인 전기노인(65~79세) | 46.9 | 22.7 | 53.6 | |
| 부부 중 1인 이상 후기노인(80세 이상) | 3.3 | 8.0 | 10.5 | |
| 교육수준 | | | | |
| 부부 모두 무학 | 10.1 | 18.2 | 39.9 | |
| 부부 중 최소 1인은 중학교 졸업 | 24.9 | 5.7 | 24.9 | |
| 부부 중 최소 1인은 고등학교 졸업 | 48.3 | 48.9 | 48.3 | |
| 부부 모두 고등학교 이상 졸업 | 16.8 | 27.3 | 16.8 | |
| 취업실태 | | | | |
| 부부 모두 취업 | 32.2 | 37.5 | 83.8 | |
| 남편만 취업 | 23.7 | 18.2 | 5.8 | |
| 아내만 취업 | 24.2 | 19.3 | 3.9 | |
| 부부 모두 비취업 | 19.9 | 25.0 | 6.6 | |
| 배우자의 건강 | | | | |
| 부부 모두 건강 | 26.5 | 26.1 | 24.5 | |
| 1인 건강+1인 그저 그러함 | 32.2 | 19.3 | 22.0 | |
| 1인 건강하지 않음+1인 건강한 편 (건강 또는 그저 그러함) | 28.9 | 38.6 | 30.9 | |
| 부부 모두 건강하지 않음 | 12.3 | 15.9 | 22.6 | |
| 계 | 100.0 | 100.0 | 100.0 | |
| (명) | (211) | (88) | (362) | |

2. 배우자와의 활동의 공유

부부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가를 가사노동과 문화여가활동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식사요리, 설거지, 빨래, 시장보기, 집안청소, 쓰레기 버리기와 같은 6개 항목을 통하여 가사노

동의 분담실태를 살펴본 <표 4>에 의하면 부부가 이러한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충주시 소태면에서 높아 6%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이는 부부가 고령 또는 신체적인 의존성으로 인하여 분리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만 자녀들로부터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시지역은 동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부인이 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항목을 불문하고 지역별로 유사하게 약 40% 내외이다. 또한 남편이 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약 40% 내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률은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빨래, 집안 청소의 경우 충주시 소태면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반 외출이나 함께하는 활동,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의 수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문화여가활동의 공유실태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11.4%가 거의 부부동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세 지역 모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충주시 소태면에서 부부동반 외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을 보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9.5%가 함께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하여 부부동반 외출률이 낮은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함께하는 활동을 3순위까지 질문하였는데 가장 높은 활동율을 보이는 항목은 장보기와 외식이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46.2%가 외식을 40.6%의 응답자가 부부가 함께 장보기를 하고 있고, 산책, 드라이브 등의 외출이 35.4%,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가 30.2%, 병(의원) 가기가 20.3%이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장보기가 45.6%로 가장 높지만 외식은 28.9%로 성북구 정릉3동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집안일, 산책, 드라이브 등의 외출, 운동 등이 빈도가 높은 항목이다. 또한 병(의)원 가기도 18.9%로 높다. 한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농사 등의 일하기가 73.2%로 월등히 높으며, 장보기가 45.9%이고 병(의)원 가기가 45.1%이다. 이 외에도 외식이 23.5%이다. 종합하면 지역과 무관하게 장보기와 병(의)원 가기는 부부가 함께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사하기와 함께 병(의)원을 함께 가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일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와 읍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면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배우자가 도움을 주고 있는 면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산책, 드라이브 등의 외출과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의 경우 대도시와 농촌 모두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동비율은 익산시 영등2동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43.2%이다. 부부가 공유하는 다각적인 문화여가활동과 일상생활이 적다는 사실이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와 주관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가사노동 분담실태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식사요리 준비 | | | |
|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 26.5 | 30.7 | 36.4 |
|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15.2 | 11.4 | 8.4 |
| 거의 비슷하게 한다 | 13.7 | 12.5 | 3.9 |
|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0.4 | 20.5 | 8.4 |
|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 23.2 | 23.9 | 37.5 |
| 부부가 하지 않는다 | 1.0 | 1.1 | 5.3 |
| 설거지 | | | |
|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 20.9 | 30.7 | 34.5 |
|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19.0 | 12.5 | 9.2 |
| 거의 비슷하게 한다 | 19.4 | 13.6 | 5.6 |
|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3.7 | 20.5 | 9.0 |
|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 16.1 | 22.7 | 35.6 |
| 부부가 하지 않는다 | 1.0 | - | 6.2 |
| 빨래 | | | |
|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 26.1 | 26.1 | 35.3 |
|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15.2 | 15.9 | 8.4 |
| 거의 비슷하게 한다 | 16.6 | 13.6 | 5.3 |
|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0.4 | 19.3 | 7.6 |
|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 20.9 | 25.0 | 37.5 |
| 부부가 하지 않는다 | 1.0 | - | 5.9 |
| 시장보기 | | | |
|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 17.1 | 22.7 | 16.3 |
|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15.2 | 14.8 | 12.9 |
| 거의 비슷하게 한다 | 31.3 | 26.1 | 35.3 |
|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0.4 | 17.1 | 12.9 |
|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 14.7 | 19.3 | 17.1 |
| 부부가 하지 않는다 | 1.4 | - | 5.6 |
| 집안청소 | | | |
|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 16.1 | 23.9 | 29.4 |
|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0.4 | 21.6 | 11.2 |
| 거의 비슷하게 한다 | 23.2 | 9.1 | 12.0 |
|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6.5 | 26.1 | 10.9 |
|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 13.3 | 18.2 | 30.3 |
| 부부가 하지 않는다 | 0.5 | 1.1 | 6.2 |
| 쓰레기 버리기 | | | |
|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 | 17.1 | 34.1 | 28.3 |
| 부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1.3 | 11.4 | 12.0 |
| 거의 비슷하게 한다 | 22.8 | 12.5 | 16.3 |
| 남편이 더 많이 하는 편이다 | 22.8 | 15.9 | 12.6 |
|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 | 15.2 | 25.0 | 25.5 |
| 부부가 하지 않는다 | 1.0 | 1.1 | 5.3 |
| 계 | 100.0 | 100.0 | 100.0 |
| (명) | (211) | (88) | (357) |

〈표 5〉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문화여가활동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부부동반 외출 빈도 | | | |
| 거의 매일 | 1.9 | 8.0 | 0.6 |
| 일주일에 2~4번 정도 | 18.5 | 19.3 | 13.0 |
| 일주일에 한번 정도 | 19.0 | 20.5 | 25.6 |
|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 28.9 | 30.7 | 43.0 |
|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 10.4 | 5.7 | 7.2 |
|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 10.0 | 6.8 | 3.3 |
| 거의 하지 않는다 | 11.4 | 9.1 | 7.4 |
|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 ¹⁾ | | | |
| 집안일 | 21.2 | 28.9 | 11.8 |
| 장보기 | 40.6 | 45.6 | 45.9 |
| 외식 | 46.2 | 28.9 | 23.5 |
|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등 관람 | 5.2 | 5.6 | 0.0 |
| 산책, 드라이브 등 외출 | 35.4 | 28.9 | 5.7 |
| 운동 | 17.0 | 28.9 | 4.6 |
|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 30.2 | 12.2 | 7.9 |
| 부모님과 함께 시간보내기 | 0.9 | 7.8 | 5.5 |
| 농사 등의 일하기 | 0.9 | 15.6 | 73.2 |
| 병(의)원 가기 | 20.3 | 18.9 | 45.1 |
| 기타 | 13.7 | 12.2 | 12.3 |
| 함께 하는 활동 없음 ²⁾ | 9.5 | 3.4 | 5.2 |
|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수 | | | |
| 없음 | 57.4 | 43.2 | 58.4 |
| 1개 | 24.6 | 27.3 | 19.3 |
| 2개 | 12.3 | 21.6 | 13.0 |
| 3개 이상 | 5.7 | 8.0 | 9.4 |
| 계 | 100.0 | 100.0 | 100.0 |
| (명) | (321) | (112) | (491) |

주: 1) 3순위까지의 응답에 해당 항목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 비율임. 2) 3순위까지 함께 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3. 부부간의 의사결정 실태와 만족도

부부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를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크다(표 6 참조). 이는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생활비 지출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약 60%가 아내가 하고 20%대가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응답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아내라는 응답이 36.9%, 남편이라는 응답이 33.3%인 등 상대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높다.

노후자금 마련 계획 및 투자와 관련해서도 농촌지역에서 남편이라는 응답이 38.0%로 도시 지역에 비하여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진로 및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서 10%p 이상 높다. 이에 비하여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및 수발의 경우는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으로 성북구 정릉3동은 60.4%, 익산시 영등2동은 40.9%, 충주시 소태면이 41.8%이다.

〈표 6〉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의견 조율 방법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의견반영 정도 | | | |
| 생활비 지출¹⁾ | | | |
| 아내 | 64.0 | 60.2 | 36.9 |
| 거의 비슷 | 28.0 | 23.9 | 29.8 |
| 남편 | 8.1 | 15.9 | 33.3 |
| 노후자금 마련 계획 및 투자¹⁾ | | | |
| 아내 | 25.6 | 31.8 | 20.7 |
| 거의 비슷 | 58.3 | 48.9 | 41.3 |
| 남편 | 16.1 | 19.3 | 38.0 |
| 자녀의 진로 및 결혼²⁾ | | | |
| 아내 | 29.2 | 34.3 | 14.4 |
| 거의 비슷 | 67.5 | 58.6 | 67.8 |
| 남편 | 3.3 | 7.1 | 17.8 |
|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및 수발²⁾ | | | |
| 아내 | 35.4 | 47.7 | 42.7 |
| 거의 비슷 | 60.4 | 40.9 | 41.8 |
| 남편 | 4.2 | 11.4 | 15.4 |
| 계 | 100.0 | 100.0 | 100.0 |
| (명) | (211) | (88) | (363) |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표 7〉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충분한 대화 | | | |
| 그런 편이다 | 43.6 | 54.6 | 60.9 |
| 그저 그렇다 | 34.6 | 21.6 | 19.5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1.8 | 23.9 | 20.7 |
| 사고의 유사성 | | | |
| 그런 편이다 | 46.5 | 56.8 | 52.1 |
| 그저 그렇다 | 26.1 | 25.0 | 19.3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7.5 | 18.2 | 28.7 |
| 부부생활(성관계)만족 | | | |
| 그런 편이다 | 37.9 | 51.1 | 46.3 |
| 그저 그렇다 | 38.4 | 27.3 | 27.3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3.7 | 21.6 | 26.5 |
| 배우자에 대한 신뢰 | | | |
| 그런 편이다 | 83.9 | 84.1 | 82.9 |
| 그저 그렇다 | 12.3 | 10.2 | 12.7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8 | 5.7 | 4.4 |
| 계 | 100.0 | 100.0 | 100.0 |
| (명) | (211) | (88) | (363) |

이러한 의사결정 외에도 다양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긍정적인 응답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화의 충분성과 사고의 유사성이다. 부부생활(성관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대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에는 지역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 반면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의 순서이다. 사고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50% 내외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18.2%로 타 지역에 비하여 10%p 정도 낮다.

부부생활(성관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대이다.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은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높은 51.1%이며, 다음이 충주시 소태면으로 46.3%이며, 다음이 성북구 정릉3동으로 37.9%여서 지역별 차이가 분명하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의 경우 80%대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와의 갈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약 31%가 갈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농촌지역은 약 21%로 약 10%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 갈등 경험률이 높은 것이다. 갈등의 주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이 가장 빈번히 언급된 원인이다. 또한 자녀의 교육, 직장 및 결혼문제라는 응답은 도시지역에서 더 빈번

히 지적된 원인으로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직 교육, 직장 및 결혼 문제에 당면해있는 자녀가 많은 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8〉 조사지역별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 갈등 경험율 ¹⁾ | 30.8 | 30.7 | 20.9 |
| 갈등의 주 원인 ²⁾ | | | |
| 경제적인 문제 | 33.9 | 29.6 | 18.4 |
| 자녀의 교육, 직장 및 결혼문제 | 12.3 | 11.1 | 4.0 |
|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 0.0 | 0.0 | 7.9 |
| 본인 또는 남편의 친구관계 | 1.4 | 0.0 | 0.0 |
| 부부간 가사분담 | 6.2 | 11.1 | 5.3 |
| 부모에 대한 부양제공 | 1.5 | 7.4 | 5.3 |
| 배우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 4.6 | 3.6 | 0.0 |
|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 36.9 | 25.9 | 29.0 |
| 기상 및 취침시간의 차이 | 0.0 | 3.7 | 0.0 |
| 가타 | 3.1 | 7.4 | 30.3 |
| 계 | 100.0 | 100.0 | 100.0 |
| (명) | (237) | (73) | (363) |

주: 1) 유배우 중고령자만을 응답대상으로 함.
 2)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168명에 대한 응답결과임.

4.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 살펴본 지역별 부부관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부부가구의 일정부분, 즉 약 10% 내외는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집단이다. 부부가 모두 80세가 넘거나, 부부가 모두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는 신체적 독립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부가 모두 무학일 경우 정보습득이나 사회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은 부부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를 하고 있고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무난하게 유지하는 현상이 눈에 띈다.

셋째, 중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부부간의 가사노동이 공유되는 편이다. 이는 부부가 양성평등적인 생각을 공유해서라기보다는 노년기의 일상생활은 부부간의 협조 없이는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유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직 남편이 주도권을 갖

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다. 즉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 하겠다.

다섯째, 부부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긴 하지만 빈도가 많지는 않고, 부부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활동은 장보기, 의료시설 이용하기이다. 특히 의료시설 이용의 경우 의료시설로부터 비교적 먼 지역인 농촌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병의원을 찾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책, 드라이브 등 여가적 성격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에 있어 함께하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지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며 충분한 대화나 사고의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편이다.

제3절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심층사례연구 결과

1. 성북구 정릉3동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가. 현재의 일상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부부가 ‘일상은 따로’와 ‘신뢰’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중년층의 경우 남편이 일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생활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이들 아빠가 사업상 지방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올라 오면은 같이 있죠. 대화는 별로 없어요.... 배우자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집에서 부부간 얘기는 잘은 안합니다. (사례1)

아침은 같이 먹구요. (아내와 함께 저녁 먹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될걸요. 그 정도 이지요. 바깥에 나가서 매일 친구들과 술 먹고 그렇게 되니까. (사례2)

또한 중년층을 넘어가면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향이 나타나 노년기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리듬이나 사회생활 등으로 인하여 각자의 영역과 삶의 리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일 수 있지만, 갈등이 생길 경우 해결하기 어렵고 수면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술 먹으면) 자기한테 귀찮게만 안하면 되요(싫어하지 않아요) ... 각방 쓰니까요, 이렇게. 이제 같이도 못자겠어요, 각방 쓰다 보니까. 같이 자면 잠이 안와요 더... (사례2)

각방 쓰지는 오래됐어. 우리 영감님이 현장직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집에 자주 안 오셨어.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랬고. (사례3)

방요? 따로 써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잘 때 더우면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선풍기 키고, 바람에 날리면 코가 따가우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못자요. (사례6)

물론 부부가 방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좋아. 아주. 그런 거는. 이때, 싸움 한 번 안 해봤어.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봤어. 우리는 지금도 각방 안 써...(사례5)

한편, 부부간 대화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부인을 위하고자 하는 속마음만은 간직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매우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특별히 대두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의견 충돌과 갈등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간에는 상당수의 이견이 조율되었고, 노후에 와서 새삼스럽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다. 또한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자녀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지 않은 원인으로 보인다. 단, 중노년기에도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3의 경우 미혼 딸의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로 갈등이 있었는데, 상담 후, 딸의 삶은 딸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극복한 바 있다.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무뚝뚝해서 그런지. 친구들과하고는 내가 많이 사귀는데, 식구들과하고는 그렇게. (사례2)

(부부간) 대화는 없어.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지, 뭐... 특별히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사례6)

이제 늙어가지고 할 것 없으니까, 서로가 위하고 사는거지 뭐. (사례6)

지네가 잘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에 일절 가면 간섭도 안하고...내가 손주들이 예뻐서 손주들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지, 뭐. (사례4)

중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가사노동 분담 방법 등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남편이 은퇴하면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사노동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계기는 부부의 건강상태 변화이다. 사례 3의 경우 아내의 건강악화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가시화된 주요 계기이다.

가사 노동은 내가 거의 다하지요. 그러나 나이 들으면 서로 협력해서 해야죠.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데, 퇴직 후 집에 있을 때는 서로 나누어서 해야죠. (사례1)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죠, 청소, 쓰레기 분리하는 거, 무거운거 나르는 거는 다하시고. 예전에는 할 새가 없었지, 직장 다니는데, (끓였을 땐) 기저귀 뭐 이런건 다 맡아주셨어요. 제가 수술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일) 하시더라고... (사례3)

물론, 많지는 않지만 평생 분담해온 부부도 있다.

다 도와줘. 도와주고, 우리는 남자 여자가 없어... 이때까지 나는 결혼하고 다림질을 안해봤어. 다림질은 자기가 알아서 해. 내가 다림질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웃음). (사례5)

활발하지는 않아도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이 삶에 활력을 주었지만 이러한 활동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는 소득의 감소와 활동반경의 축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은 가끔 같이 가지만, 특별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거는 없어요. 부부 동반 모임은 일 년에 한 2-3번 정도 있어요. 예전 친구들 모임에 같이 참석하면 기분이 좋지요(웃음). (사례1)

부부동반은 우리 식구끼리 가고 이외에는 아빠도 모임이 있는데, 안 가. 거기는.. (중략).. 활동은 이제 고궁에 가자. 어디 먹으러가고 그러는데는 둘이 가지.. 배려를 많이 해. 음식점에도 가도 그렇고. 앉으라 그러고.. 매너는 좋아. 뭐든지 먼저 먹으라고 주고.(사례5)

이러한 노년기의 무력감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저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를 못해주니까, 저들 하는 대로 보고 있는 거지. 저들이 알아서... 난 경제권이 없으니까, 저들이 하는 대로 보는 거지.(사례6)

나. 미래전망

기본적으로 응답자 및 배우자(남편) 모두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후에 자녀가 함께 사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인의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년층의 경우는 아직은 50대 부부로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사례1과 사례2의 경우는 귀농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시설 입소도 생각하는 등, 이들이 노년기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건강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나중에 시골에 가서 살려고요. 고향도 있지만, 남편 사업장 옆에 땅을 구입해서, 그 근처에 살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면, 저는 요양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노인들은 요양원이라면 싫어하지만, 저희 세대는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부담 없고 좋잖아요, 편리하고...(사례1)

저는 시골 좀 내려가려고 그러는 데. 혼자서는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집사람은 시골은 별레도 있고, 모기도 있고, 그래서 싫다고... 친구랑 갈려고. (사례2)

이러한 고민은 노년층도 마찬가지이다.

둘이 살다가 만약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양로원가야지...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자식들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사례4)

뭐 같이 살어. 젊은 애들 편하게 살게 해주고.. (배우자가 사망하면)..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같이 죽지는 못하니까, 각자 따로 따로 죽으니까는, 혼자 남으면 그렇게 사는 때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해. (사례5)

또 다른 대안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는 사례6은 임대료·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한 상태이며, 부부끼리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더 낫지, 둘이 사니까 편하지. (사례6)

2. 익산시 영등2동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가. 현재의 일상

중소도시의 인터뷰 대상자는 2명으로 모두 남자이다. 따라서 여자의 관점은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부부의 생활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이들의 인터뷰에 기초해볼 때 가사분담을 꼭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분담을 하고 있으며 노화가 진전될수록 혼자만이 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점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내가 대충 도와주고, 밥 조금 해놓고 하는 것은 하지만, 내가 일을 할 때에는 집사람이 하고, 많이 도와주는 거나 내가 하는게 뭐가 있어. 각시가 빨래 돌리면 내가 널고 걷어오기나 하고... (사례7)

예, 요새 분담해서 해요 그냥. 우리가 나이가 83세이고 82세이거든요. 금계 많은 게 어떨 때는 쓰레기 같은 것도 갖다가 버리고 거시기한 놈 심부름도하고,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분담해야지요. (사례8)

또한 이들은 적극적인 문화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영화를 보는 등의 여가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활동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가의 여부 이전에 개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 여부가 먼저 이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공원이 여기서 가깝고 좋아요. 운동은 지금 비 올 때만 안 나가지, 매일 가요. 매일 가서... 계속 해서 몇십년을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건강하나 몰라. (사례8)

30년 넘어가지고 뭘 데이트가 있어.. 애들 있을 때는 영화도 봐 주고 표 끊고 놀아. 집사람은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안다녀. 집 근처에 공원이 좋아. 그것도 솔직한 말로 나는 싫어. 사람이 움직이는 거 싫잖아. (사례7)

한편 주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부사이의 갈등은 거의 없고, 여지가 있어도 이해하고 익숙해져서 무난하게 덮어가는 상황이다. 사례7의 경우 갈등의 형태는 아니지만, 응답자는 배우자(부인)의 잔소리가 많다고 말하며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부부끼리 많은 대화

를 나누지는 않고 대화나 애정표현의 방식 등 또한 살가운 편은 아니다.

그 전에는 영화도 보러가고 그랬는데 데이트라고 할 수도 없어 내내 잔소리 했잖지. 이기면 거 뭐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여 그냥, 잔소리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사례7)

얘기 할 것도 별로 없어. TV보면서 웃고 그러는 거지 뭐. 뭐 저기 여자들이 그렇잖아. .. (아내가 자원 봉사하는 것) 조금씩 하는데 나한테는 말 안한 게.. (중략) .. 자네도 결혼했지만 맨날 보는 여자하고, 30년 넘게 살다가 보니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10년 넘게 살아봐. 여자가 여자 같지가 않아요. 항상 보듬어주고 보봐하고 이뻐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사례7)

유사한 맥락에서 의사결정의 경우도 일방적으로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 때문에 배우자와 상의하게 된다.

생활 패턴이나, 판 거 일 있으면 상의해서 하나까, 가정 편해. 왜 인고 하니, 단독으로 거시기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디. (사례8)

나. 미래전망

건강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드러내 놓고 부부가 대화의 주제로 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면 저축이나 부동산 처분 등을 하여 사설 양로원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부부끼리 공유된 이야기는 아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중풍 같은 거. 차라리 암 같은 것은 괜찮아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풍이래.. (중략) .. 같은 날 죽지는 않을 것 아니야. 있는 것 다 털어가지고 돈 내고 가는 양로원 있어. 구차하게 애들한테 찢끔찢끔하지 말고...(사례7)

3. 충주시 소태면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가. 현재의 일상

따로 하는 일상생활이 농촌지역에서도 예외적인 현상은 아닌 듯하다. 소태면의 사례에서도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강하게 성별로 분리

된 여가 및 지역사회관계가 고착화된 경향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식사의 경우에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

(생활패턴) 거의 비슷해요.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요. 지난 37년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마을회관에서) 스포츠댄스를 했어요. (남편분과는 함께 안하셔요?) 안그래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좀 내성적이라, 안 맞는데. (사례9)

봉사활동은 자주해요. 면사무소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중략) .. 아버지는 그런 거 할 새가 없지. 면에서 이런 자잘한 단체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시간에는 (대화)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같이 식사할 시간이 없지요.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거의 다.. (중략) .. 요즘엔 더우니까는 (웃음) 이방 쓰고 저 쪽 방 쓰고 그러지요. 겨울에는 한 방 쓰죠. 연료비도 절감되고. (사례11)

우리 할아버지는 거기(경로당) 남자분이 안 계시니까 안가지요. 점심 챙겨 드리고, 한 서너 시간씩 경로당에 가서 노인네들 심심하니까 장난삼아 화투도 하고... (사례15)

동반 외출은 별로 몰라요. 당신 갈 때 당신 가고, 내가 갈 때 내가 가고. (사례15)

한편, 가사분담 등과 관련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구조가 아주 뚜렷함을 볼 수 있다. 즉 일생동안 남편은 주로 농사 등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배우자(부인)는 가사 일을 전담하는 역할분담이 되어 있으며, 이는 결혼 이후부터 지속된 형태였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골서 일하는 것이 거의 부인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인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세대차이인지는 몰라도 가사일은 잘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례10)

아직은 구세대라, 저희는 제가 밭하기, 빨래하기 등 집안일을 모두 하고, 우리 아저씨(남편)는 밭에 풀 뽑고 농작물 소독하고 농사에 전념하시죠. 나이가 많으니까 가사활동을 하기 싫고, 피도 나죠. 그렇지만 가정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죠. (사례12)

옛날부터 그리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구요, 그냥 내가 할 일 딱딱해서 들이고, 빨래도 들이고, 남자 할 일이 들어나 가서...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계속 농사일 조금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해요. (사례15)

도시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강한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중년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분담구조가 결혼 이후부터 지속된 형태였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자가 살림하면 못 써,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돈 관리도 남자가 하면 얼마나 그런데...(사례9)

시골서 일하는 것이 거의 부인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인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세대차이인지는 몰라도 가사일은 잘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며느리 아들도 그런 식(가사분담)으로 하는가 보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해고봐서 잘..(사례10)

그러나 배우자 한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동안 지속되어오던 역할분담 구조에 변화에 생기게 된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사례13의 경우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즉 가치관 보다는 현실의 압박이 큰 것이다. 며느리가 가출하여 손자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입원으로 가사일까지 맡게 된 사례13 할아버지는 현재의 본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남자 두 분이서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는 것이 힘들겠다는 언급에 대하여) 빨래 같은 것도 가서 주어서 다 널고 마르면 개고, 개는 건 내가 개서 놔두고. 주로 나는 하는 거 있어요? 청소나 하고.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사례13)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타협해 온 원칙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주는 안도감, 욕심을 버리고 사는 태도 등도 큰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로 보인다.

거의 우리는 부딪치는 일은 없고, 우리는 두 내외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 맞게끔 하면... (사례10)

잘 맞는다고는 생각은 여적 안해봤는데? 그냥 성실하니까 내가 붙어사는 거지. (생략) 나쁜 것도 아니야, 웬수같이 싸우지도 않고, 보통이에요. [그래도 요근래 갈등은 없으시다고] 응, 없어요. 잉꼬 부부야. (사례9)

크게 말다툼이 많지를 았았어요. (싸우면) 자리를 피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잘못된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잘못된 게 있으면 본인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바로 그러면 같이 인정하고 그렇게 말로 대화로 풀고서는 그냥... (사례11)

고집스러워 그게 참 어려움이예요. 근데 그래도 이 나이에 옆에 남편이 있다는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속상하고 그런 것들을 순간 울분이 치밀다가도 마음으로 달래고 그러고 살았어요. (사례12)

(갈등) 없어요. 애들 다 키워가지고 끝났으니까. 애들이나 잘되기를 바라는 거지, 바랄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14)

더불어 노년기 후기로 가면서 동년배의 수가 줄어 소수가 되고 다른 연령과 어울리기 어려운 점, 자녀의 눈치도 보게 된다는 점 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80넘은 사람이 가면 뭐해요. 나 하나인데... 가면 뭐 대화가 되나, 뭐 늙은이가 값 떨어지고 뭐 하러가 아무데나 있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사례16)

자식들 크면 눈치봐야 돼, 옛날 시대같이 자식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저거가 아니여. 지금 시대는 그래요... (사례9)

나. 미래전망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후기노년기로 갈수록 소극적인 것 같다. 중년층의 경우는 뚜렷한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사례10처럼 캠핑카에 대한 로망, 도시지역으로는 이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아직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이 유지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노후설계인 것이다.

어느 정도 세월이 조금만 더, 더 늦기 전에 캠핑카를 하나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싶은 생각. 이사는 안 해. 도회지가 싫고 아파트 생활이 싫고... (사례10)

의지는 하지요, 서로 의지는 하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요. 서로 의지를 해야지 사니까 어찌겠어요. (사례14)

자식들한테 부담 안주고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는지.. 자식한테 안가. 혼자 살아야지, 지금 다 혼자 사는데. 밥만 끓여먹으면 될 텐데, 혼자살아, 혼자 사는게 편해... 늙은이 가면 뭐 좋겠어. 앞으로 자식한테는 안 바래. (사례9)

언제까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꿈쩍거리어서 먹고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이렇게 마음 편하

게 있지 자식집에 가겠다는 이런 마음은 없어요...보고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보고, 먹고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식성을 맞춰 먹고, 왜 거기 가서 눈치보고 살어...(사례15)

그러나 역연령적 연령과는 상관없이 건강이 나빠질 때를 생각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와 근거리에 거주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사례11의 경우도 있다.

해로해가지고 건강해서 잘 산다면 자식 옆에 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혼자 살면, 건강이 허락이 되면 자녀들 사는데 가까운 데로 모여서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사례11)

더불어 현재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부부보다 자식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첫째는 자식이요, 영감보다 첫째는 자식이요. 이젠 영감 죽을 때 됐잖아요. 영감은 뒷전이고, 자식이 제일이요. 중요한 게 자식이요 이제... 오남매인데 자식들이 제일 중해요. (사례16)

또한 혼자 남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성향도 발견되었다. 사례14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으로 그런 가정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이며, 외지에 나가있는 장남이 은퇴하면 현 거주지에서 같이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혼자되는) 그럴 일은 없지요....애들한테 의지나 하는 거지 뭐. 재주가 없지 뭐. (사례14)

4. 요약 및 시사점

세 지역의 16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 및 연령군별 특성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과 연령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부부가 일상생활을 많이 공유하지는 않지만 서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더 이상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배우자를 포함한 내가 해쳐나가야 할 숙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년기가 진전되면서 변화하는 양상도 있는데 전통적 성역할 분담에 동의하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부부가 어느 정도는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언제 어떠한 강도로의 변화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부부의 건강상태의 변화, 남편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년기 부부가구가 당면하게 될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위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아직도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많지 않다. 막연한 기대 또는 회피 현상 등이 일반적이다. 더불어 부부가 배우자의 사망, 건강상태의 악화 등과 같은 예견되는 노년기의 변화를 다수의 중노년층 부부가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외부적인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부부가 결혼 후 지속되었던 사회활동 공간의 분리 현상을 극복하거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대상자가 활동을 하는가 여부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관심을 요한다. 즉 절대적인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빈도가 낮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단계가 아닌 것이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다. 더불어 노화가 진전되면 동년배의 지인이 사망하고, 자신의 경제적 및 신체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본인을 사회의 주류라기보다는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소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현상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들 중노년층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요구된다 하겠다.

제4절 종합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또는 부부간의 일상생활 공유 등에 관한 분석에서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중고령자의 미래전망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에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막연한 기대 또는 회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가 함께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연령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 가치관은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부끼리 생활해야 하는 경우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출되었다. 이는 부부관계에 있어 잠재적 갈등의 소지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남성들이 노년기 진입에 앞서 구체적인 가사노동 방법에 대한 교육과 바람직한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부부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그들만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도록 외부자원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교활동이 노년기의 활력을 가져오고 비상시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상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역주민의 관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표 3

미혼자의 만혼화 특성과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행태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미혼자의 만혼화 특성과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행태

“저출산 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3개 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른 각각의 사례(case)에 해당하며,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 사례연구’로 볼 수 있다. 지역을 사례로 본다는 관점에서 3개 지역은 각각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이라는 전형을 대표하며, 1개 지역이 곧 1개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지역사례조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추적조사 연구는 2013년에 처음 시작하여 2개년도가 경과하였으며, 그동안의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방향을 탐색한 단계로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 기간 동안 저출산 분야는 결혼과 임신·출산·자녀양육에 초점을 두었다. 2013년의 경우 미혼자의 결혼행태 분석을 위하여 교육, 직업, 가족관계와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력과 임신결과,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 자녀양육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는 기초분석으로 미혼인구의 만혼화 실태,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를 분석하였고, 심층분석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진행된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미혼자의 경우는 미혼지속기간과 만혼화 실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기혼자의 경우는 자녀수와 출산계획, 그리고 자녀양육 실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이후 연구계획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절 미혼자의 만혼화 특성

1. 조사지역 미혼인구의 일반특성

미혼인구 조사 완료된 사례수는 2013년 123명, 2014년 139명이었고, 2014년 사례수 139명 중 2013년에 이어 동일하게 유지된 사례는 성북구 정릉3동 42명, 익산시 영등2동 15명, 충주시 소태면 20명이었다. 성북구 정릉3동이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였고(20명 탈락, 42명 진입), 익산시 영등2동은 약 50% 정도가 탈락한 뒤에 탈락한 정

도만큼 다시 진입하였다. 충주시 소태면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탈락한 인원이 제일 적지만 (12명), 미혼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사에 응답하는 인원이 적어 새로운 조사대상자가 5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2013년에 비해 미혼인구가 적게 나타났다.

2014년 미혼인구의 성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 50명, 여자 34명으로 총 84명,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 18명, 여자 12명으로 총 30명,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1명, 여자 4명으로 총 25명이다. 2013년에는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가 34명, 여자 28명, 총 62명으로 2차 조사에서 22명이 더 조사되었다.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 13명, 여자 16명, 총 29명으로 1명이 더 조사되었으며, 충주시 소태면은 남자 26명, 여자 6명, 총 32명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조사완료 대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령분포는 2013년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에서 20대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2013년 48.4%에서 2014년 52.4%로 증가하였고, 익산시 영등2동은 2013년 65.5%에서 76.6%로 증가하였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30대가 2013년 28.2%에서 48.0%로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구성이 바뀌었거나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10대 인구가 조사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사례수가 2013년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한 결과이거나(성북구 정릉3동), 조사거부로 인해 새로운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확장하는 중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미혼자의 가구소득 분포는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29.8%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고, 익산시 영등2동은 400~50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높았다. 충주시 소태면은 300~400만원 미만이 24.0%로 가장 많았으나, 4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도 각각 20%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성북구 정릉3동의 가구소득 분포에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교육수준은 2013년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세 지역 모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에도 이어 반복 조사된 총 139명의 조사대상자 중 한 명만이 2014년 대학에 진학하였다.

취업 여부 역시 큰 변동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은 취업한 상태가 많아졌고, 익산시 영등2동은 반대로 비취업이 48.3%에서 56.7%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저연령층이 조사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1〉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일반특성

(단위: 명, %)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성 | | | | | | |
| 남자 | 50(59.5) | 18(60.0) | 21(84.0) | 34(54.8) | 13(44.8) | 26(81.3) |
| 여자 | 34(40.5) | 12(40.0) | 4(16.0) | 28(45.2) | 16(55.2) | 6(18.8) |
| 연령 | | | | | | |
| 20~24세 | 25(29.8) | 16(53.3) | 2(8.0) | 17(27.4) | 14(48.3) | 9(28.1) |
| 25~29세 | 19(22.6) | 7(23.3) | 8(32.0) | 13(21.0) | 5(17.2) | 10(31.3) |
| 30~34세 | 20(23.8) | 4(13.3) | 8(32.0) | 16(25.8) | 6(20.7) | 7(21.9) |
| 35~39세 | 10(11.9) | 1(3.3) | 4(16.0) | 5(8.1) | 1(3.4) | 2(6.3) |
| 40~44세 | 7(8.3) | 1(3.3) | 3(12.0) | 7(11.3) | 1(3.4) | 4(12.5) |
| 45~49세 | 3(3.6) | 1(3.3) | - | 4(6.5) | 2(6.9) | - |
| 가구소득 | | | | | | |
| 100만원 미만 | 8(9.5) | 1(3.3) | 3(12.0) | 7(10.7) | 1(3.6) | 4(13.3) |
| 100~200만원 미만 | 15(17.9) | 2(6.7) | 3(12.0) | 13(21.4) | 1(3.6) | 6(20.0) |
| 200~300만원 미만 | 12(14.3) | 7(23.3) | 3(12.0) | 12(19.6) | 8(28.6) | 7(23.3) |
| 300~400만원 미만 | 16(19.0) | 5(16.7) | 6(24.0) | 10(16.1) | 3(10.7) | 5(16.7) |
| 400~500만원 미만 | 8(9.5) | 9(30.0) | 5(20.0) | 8(12.5) | 8(28.6) | 4(13.3) |
| 500만원 이상 | 25(29.8) | 6(20.0) | 5(20.0) | 12(19.6) | 7(25.0) | 4(13.3) |
| 교육수준 | | | | | | |
| 초등학교 이하 | - | - | 1(4.0) | - | - | 1(3.1) |
| 중학교 | 2(2.4) | 1(3.3) | 1(4.0) | 2(3.2) | 1(3.4) | - |
| 고등학교 | 20(23.8) | 3(10.0) | 5(20.0) | 14(22.6) | 1(3.4) | 8(25.0) |
| 대학 이상 | 62(73.8) | 26(86.7) | 18(72.0) | 46(74.2) | 18(93.1) | 23(71.9) |
| 취업 여부 | | | | | | |
| 예(취업) | 56(66.7) | 13(43.3) | 20(80.0) | 36(58.1) | 15(51.7) | 24(75.0) |
| 아니오 | 28(33.3) | 17(56.7) | 5(20.0) | 26(41.9) | 14(48.3) | 8(25.0) |
| 계(%) | 84(100.0) | 30(100.0) | 25(100.0) | 62(100.0) | 29(100.0) | 32(100.0) |

〈표 2〉는 조사지역의 2014년과 2013년 연령별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와 여자 모두 2013년보다 20~24세의 분포가 늘어났고, 30대의 분포는 줄어들었다. 익산시 영등2동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20~24세의 비율이 56.3%에서 75.0%로 늘어났다. 충주시 소태면은 20~24세 남자가 크게 줄었다. 여자는 전체 조사대상자가 2013년 6명이었으나, 2014년에 2명이 줄어 4명에 그쳤다.

〈표 2〉 조사지역별 미혼인구의 연령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2014년 | | | | | | |
| 20~24세 | 13(26.0) | 12(35.3) | 7(38.9) | 9(75.0) | 1(4.8) | 1(25.0) |
| 25~29세 | 9(18.0) | 10(29.4) | 5(27.8) | 2(16.7) | 7(33.3) | 1(25.0) |
| 30~34세 | 16(32.0) | 4(11.8) | 4(22.2) | - | 6(28.6) | 2(50.0) |
| 35~39세 | 7(14.0) | 3(8.8) | - | 1(8.3) | 4(19.0) | - |
| 40~44세 | 4(8.0) | 3(8.8) | 1(5.6) | - | 3(14.3) | - |
| 45~49세 | 1(2.0) | 2(5.9) | 1(5.6) | - | - | - |
| 계(%) | 50(100.0) | 34(100.0) | 18(100.0) | 12(100.0) | 21(100.0) | 4(100.0) |
| 2013년 | | | | | | |
| 20~24세 | 8(23.5) | 9(32.1) | 5(38.5) | 9(56.3) | 7(26.9) | 2(33.3) |
| 25~29세 | 8(23.5) | 5(17.9) | 2(15.4) | 3(18.8) | 7(26.9) | 3(50.0) |
| 30~34세 | 10(29.4) | 6(21.4) | 4(30.8) | 2(12.5) | 6(23.1) | 1(16.7) |
| 35~39세 | 3(8.8) | 2(7.1) | 1(7.7) | - | 2(7.7) | - |
| 40~44세 | 4(11.8) | 3(10.7) | - | 1(6.3) | 4(15.4) | - |
| 45~49세 | 1(2.9) | 3(10.7) | 1(7.7) | 1(6.3) | - | - |
| 계(%) | 34(100.0) | 28(100.0) | 13(100.0) | 16(100.0) | 26(100.0) | 6(100.0) |

2. 교육과 만혼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육수준 외에 총교육연장기간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교육연장기간은 고등학교부터 최종학력 재학 혹은 졸업기간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최근 미혼인구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조사대상자 중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기간은 0으로 계산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최종학력 졸업 시기까지의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여 총교육연장기간으로 정의하고,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연관성, 그리고 총교육연장기간과 결혼행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 교육과 미혼지속기간

2013년 지역추적조사를 통해 본 교육과 만혼화의 상관성은 익산시 영등2동 남자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대부분 기존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2014년 조사대상자 중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으며, 학력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의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 6.3년, 여자 6.5년, 익산시 영등2동 남자 7.4년, 여자 6.0년, 충주시 소태면 남자 7.8년, 여자 9.4년으로 평균 4년제 대학까지의 기간으로 보인다(표 3 참조).

성북구 정릉3동의 여자 중 45~49세의 총교육연장기간은 평균 16.9년으로 월등히 긴데, 2명 중 한 명이 늦게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면서 평균치가 증가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주시 소태면의 총교육연장기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 사례수가 적고 고연령층이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 남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는 1명에 불과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후에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와 대학교 졸업에 10년 가량 걸린 기간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상승하였다. 충주시 소태면 여자 역시 4명 중 2명이 고등학교 졸업 후 늦게 대학교에 진학하여 총교육연장기간이 증가하였다.

〈표 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연령별 평균 총교육연장기간(2014)

(단위: 년,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20~24세 | 6.6(13) | 6.3(12) | 5.7(7) | 5.6(9) | 6.1(1) | 4.9(1) |
| 25~29세 | 6.6(9) | 6.6(10) | 11.0(5) | 6.4(2) | 7.3(7) | 6.9(1) |
| 30~34세 | 6.6(16) | 3.9(4) | 7.4(4) | - | 7.9(6) | 12.9(2) |
| 35~39세 | 6.9(7) | 5.9(3) | - | 8.9(1) | 5.3(4) | - |
| 40~44세 | 3.5(4) | 3.6(3) | 4.9(1) | - | 12.7(3) | - |
| 45~49세 | 2.9(1) | 16.9(2) | 2.9(1) | - | - | - |
| 전체(명) | 6.3(50) | 6.5(34) | 7.4(17) | 6.0(12) | 7.8(19) | 9.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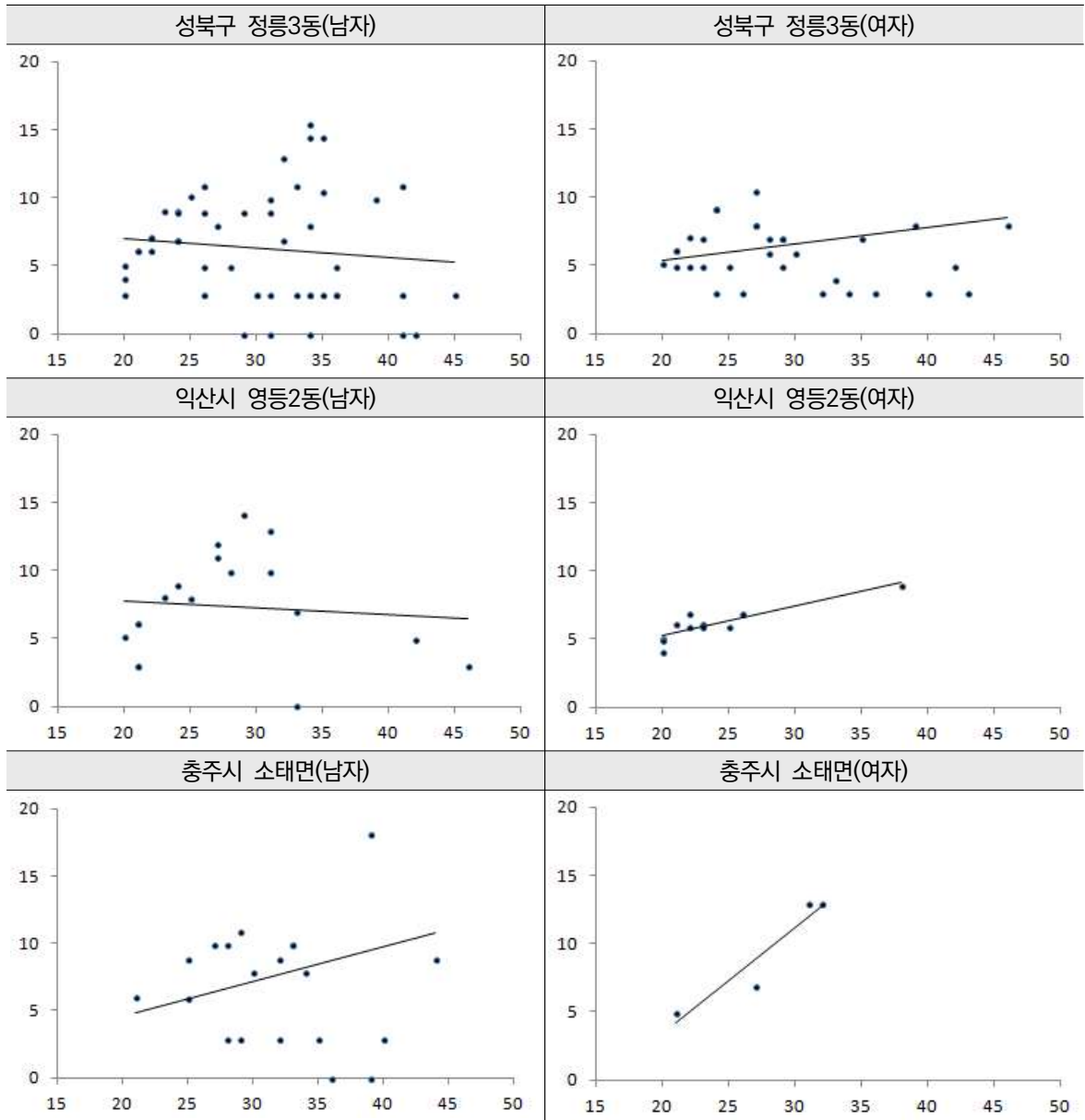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경우만 제외하고 2013년과 동일한 상관성을 보였다(그림 1 참조). 성북구 정릉3동 남자는 미약하게나마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유지가 된 경우가 22명이었고 새로 조사된 대상자가 28명이어서 새로운 대상자가 추가되어 이들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13년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30.3세였다. 그러나 2014년에 표본이 유지가 된 경우의 평균 미혼지속기간이 31.6세, 새로 진입한 경우가 29.1세로, 새로 진입한 집단의 연령이 약간 낮았다.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은 2013년 5.9년이었는데, 표본유지가 된 경우 평균 총교육연장기간이 7.0년, 새로 진입한 집단이 평균 5.8년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본유지가 된 경우에는 30대 초반에서 총교육연장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평균값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은 지역별, 성별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관성 정도는 추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2014)

(단위: 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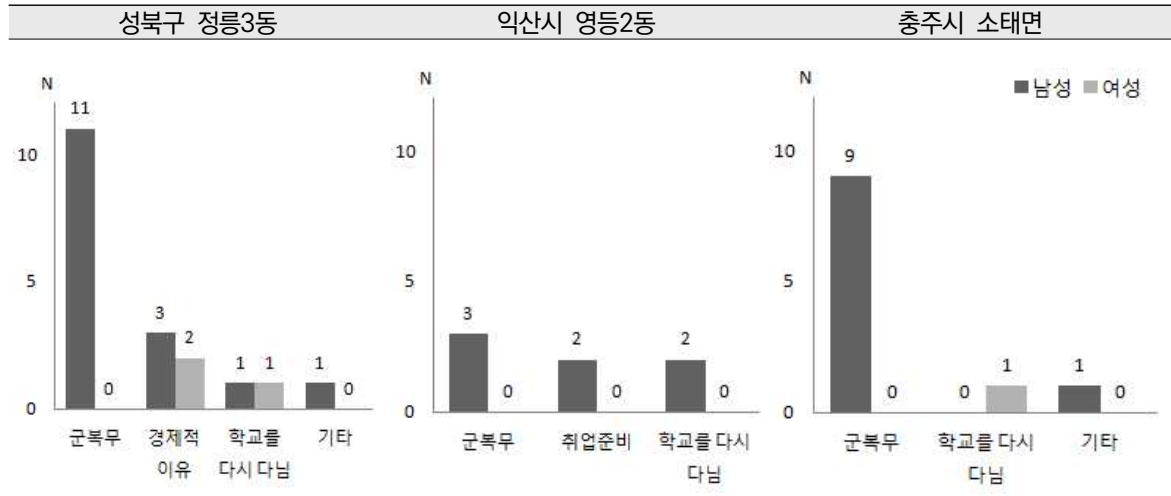


[그림 2]는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대학교 기간 내 간격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간격발생의 주 이유는 모든 지역에서 군복무로 나타났다. 다른 이

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취업준비 등이 있었다.

[그림 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대학교급간 간격 발생 이유(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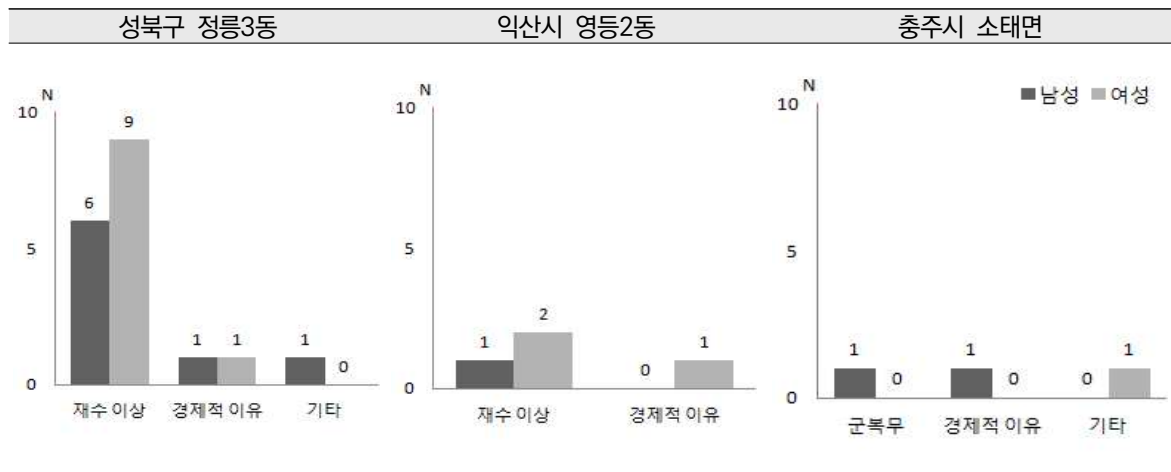
(단위: 명)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며 간격이 생긴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이나 충주시 소태면에 서는 몇 사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북구 정릉3동은 남자 8명, 여자 10명에서 간격 발생이 있었다(그림 3 참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재수 등의 상위학교급으로 진학하기 위한 간격 발생이 었다. 진학할 때의 간격 발생은 총교육연장기간을 늘려 추후 취업이나 결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고등학교-대학교급 간격 발생 이유(2014)

(단위: 명)



나. 교육과 결혼행태

〈표 4〉는 2014년 세 지역 중 성별로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총교육연장 기간과 결혼의사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성북구 정릉3동 남자의 경우 총교육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주시 소태면을 제외하고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결혼의사가 낮았다. 특히 도시 지역인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여자의 결혼의사가 57.7%에 불과하였다. 2명이지만 충주시 소태면 여자가 모두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2014)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년 이하 | 63.6(11) | 40.0(5) | 66.6(3) | - | 50.0(6) | - |
| 3~7년 이하 | 90.0(10) | 61.5(13) | 75.0(4) | 66.7(9) | 100.0(2) | 100.0(1) |
| 7~10년 이하 | 90.0(10) | 57.1(7) | 100.0(4) | 0.0(1) | 77.8(9) | 100.0(1) |
| 10년 초과 | 100.0(7) | 100.0(1) | 33.3(3) | - | 100.0(3) | - |
| 전체(명) | 84.2(38) | 57.7(26) | 71.4(14) | 60.0(10) | 75.0(20) | 100.0(2) |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 으로부터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2014년 조사에서 결혼할 의사가 있거나, 현재까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몇 세에 결혼할 계획인지를 묻는 응답에는 〈표 5〉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세 지역 모두 짧은 총교육연장기간에는 결혼계획연령이 높다가, 3~7년 혹은 7~10년 사이에 낮아지고, 총교육연장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결혼계획연령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결혼계획연령은 실질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보다 높게 응답해야 함을 고려하면, 총교육연장기간이 짧을 때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은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총교육연장기간이 짧은 상황(표 5 참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교육연장기간이 긴 경우 결혼계획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총교육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5〉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별 평균 결혼계획연령(2014)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년 이하 | 36.8(10) | 33.5(2) | 36.7(3) | - | 34.3(3) | - |
| 3~7년 이하 | 31.1(10) | 31.0(9) | 31.0(4) | 27.3(7) | 29.0(2) | 31.5(2) |
| 7~10년 이하 | 32.5(10) | 30.4(5) | 31.8(4) | - | 33.1(7) | - |
| 10년 초과 | 35.4(8) | 33.0(1) | 32.0(2) | - | 39.3(3) | 35.5(2) |
| 전체(명) | 33.9(38) | 31.2(17) | 32.7(13) | 27.3(7) | 34.1(15) | 33.5(4) |

2014년 조사에서 본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연령은 대부분 비슷하였다(표 6 참조). 남자의 경우, 이상적인 남자의 결혼연령은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는 이상적인 여자의 결혼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6〉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총교육연장기간별 이상적인 결혼연령 평균(2014)

(단위: 세,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년 이하 | 32.8(18) | 30.0(7) | 31.0(4) | - | 30.0(6) | - |
| 3~7년 이하 | 30.4(11) | 29.3(16) | 30.2(5) | 27.6(11) | 29.0(2) | 31.0(2) |
| 7~10년 이하 | 32.3(12) | 29.9(8) | 30.6(5) | 34.0(1) | 30.1(9) | - |
| 10년 초과 | 31.1(9) | 30.5(2) | 32.0(4) | - | 30.0(3) | 31.5(2) |
| 전체(명) | 31.8(50) | 29.6(33) | 30.9(18) | 28.2(12) | 30.0(20) | 31.3(4) |

2. 직업과 만혼화

가. 직업과 미혼지속기간

〈표 8〉은 2014년 조사에서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을 나타낸다. 지난 3년 내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상관성이 없으나 익산시 영등2동 남자의 경우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충주시 소태면 남자의 경우는 반대로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짧아지는 것

으로 나타난다.

〈표 8〉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미혼지속기간(2014)

(단위: 년,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0회 | 24.9(7) | 26.0(3) | 23.9(7) | 24.2(5) | 37.5(2) | - |
| 1회 | 32.0(26) | 31.1(15) | 30.0(9) | 22.7(6) | 33.0(8) | 26.3(3) |
| 2회 | 28.6(10) | 27.3(10) | 33.0(1) | 23.0(1) | 31.2(9) | 32.0(1) |
| 3회 | 29.5(6) | 30.3(6) | 33.0(1) | - | 31.5(2) | - |
| 4회 | 41.0(1) | - | - | - | - | - |
| 전체(명) | 30.2(50) | 29.4(34) | 27.9(18) | 23.3(12) | 32.5(21) | 27.8(4) |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은 아래 〈표 9〉에 제시하였다. 각 소득 수준별 평균 미혼지속기간은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익산시 영등2동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근로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각 집단별 미혼지속기간의 경향성을 보이는 지역 및 성별은 존재하지 않았다(표 10 참조).

〈표 9〉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 근로소득수준별 미혼지속기간(2014)

(단위: 년,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비경제활동 | 29.0(18) | 26.4(10) | 25.5(14) | 24.2(5) | 32.0(5) | 21.0(1) |
| 100만원 미만 | 36.7(3) | 24.7(6) | - | 21.0(2) | 32.7(6) | 29.5(2) |
| 100~200만원 미만 | 28.6(19) | 33.5(11) | 25.0(1) | 23.4(5) | 33.5(4) | 31.0(1) |
| 200~300만원 미만 | 33.1(8) | 29.7(6) | 37.5(2) | - | 32.2(6) | - |
| 300~400만원 미만 | 34.0(1) | 42.0(1) | 46.0(1) | - | - | - |
| 400만원 이상 | 35.0(1) | - | - | - | - | - |
| 전체(명) | 30.2(50) | 29.4(34) | 27.9(18) | 23.3(12) | 32.5(21) | 27.8(4) |

〈표 10〉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최근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별 미혼지속기간

(단위: 년,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총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비경제활동 | 29.0(18) | 26.4(10) | 25.5(14) | 24.2(5) | 32.0(5) | 21.0(1) |
| 40시간 미만 | 30.3(4) | 24.7(6) | - | - | 36.0(2) | - |
| 40~60시간 미만 | 31.6(17) | 33.4(16) | 36.5(4) | 23.0(6) | 30.4(11) | 31.5(2) |
| 60~80시간 미만 | 29.8(11) | 26.5(2) | - | 21.0(1) | 39.0(3) | - |
| 80시간 이상 | - | - | - | - | - | 27.0(1) |
| 전체(명) | 30.2(50) | 29.4(34) | 27.9(18) | 23.3(12) | 32.5(21) | 27.8(4) |

나. 직업력과 결혼행태

2014년 조사에서 각 지역별 남녀 미혼인구의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모든 지역과 성별에서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결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직업경험횟수가 많을수록 미혼지속기간이 증가하여 결혼의사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세 지역의 직업경험횟수와 미혼지속기간의 상관성이 크지 않았다. 반면, 직업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생각해보면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해 안정을 꾀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표 11〉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결혼의사가 있는 비율(2014)

(단위: %,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총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0회 | 66.7(6) | 0.0(2) | 83.3(6) | 50.0(4) | 0.0(2) | - |
| 1회 | 85.7(21) | 46.2(13) | 66.7(6) | 60.0(5) | 87.5(8) | 100.0(2) |
| 2회 | 83.3(6) | 71.4(7) | 100.0(1) | 100.0(1) | 75.0(8) | - |
| 3회 | 100.0(4) | 100.0(4) | 0.0(1) | - | 100.0(2) | - |
| 4회 | 100.0(1) | - | - | - | - | - |
| 전체(명) | 84.2(38) | 57.7(26) | 71.4(14) | 60.0(10) | 75.0(20) | 100.0(2) |

주: 응답 중 '잘 모르겠다'와 '생각해본 적 없다'를 제외하고 '있음', '없음'으로만 구분하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표시함.

2014년 조사에서 결혼계획연령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익산시 영등2동 여자의 결혼계획연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젊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업경험횟수에서 오는 차

이러기보다 익산시 영등2동에서 조사된 미혼여자의 연령이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참조).

〈표 12〉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평균결혼계획연령(2014)

(단위: 세,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0회 | 32.0(5) | 30.0(1) | 29.8(6) | 28.3(3) | - | - |
| 1회 | 34.6(20) | 31.6(5) | 35.2(6) | 26.3(3) | 33.9(7) | 32.3(3) |
| 2회 | 31.9(7) | 31.9(7) | 35.0(1) | 27.0(1) | 33.8(6) | 37.0(1) |
| 3회 | 34.0(5) | 30.0(4) | - | - | 35.5(2) | - |
| 4회 | 42.0(1) | - | - | - | - | - |
| 전체(명) | 33.9(38) | 31.2(17) | 32.7(13) | 27.3(7) | 34.1(15) | 33.5(4) |

2014년 조사에서 응답자와 동일한 성별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지역별 혹은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직업경험횟수가 높아질수록 이상적인 결혼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2013년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다른 지역은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요인은 추후 지속되는 조사를 통해 알아보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측면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 13〉 조사지역별 성별 미혼인구의 3년 내 직업경험횟수별 이상적인 결혼연령(2014)

(단위: 세, 명)

| 구분 | 성북구 정릉3동 | | 익산시 영등2동 | | 충주시 소태면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0회 | 31.1(7) | 28.3(3) | 30.4(7) | 28.8(5) | 30.0(1) | - |
| 1회 | 31.8(26) | 30.2(14) | 31.9(9) | 28.0(6) | 29.8(8) | 29.3(3) |
| 2회 | 32.7(10) | 29.0(10) | 28.0(1) | 26.0(1) | 30.1(9) | 37.0(1) |
| 3회 | 30.7(6) | 30.0(6) | 28.0(1) | - | 30.0(2) | - |
| 4회 | 34.0(1) | - | - | - | - | - |
| 전체(명) | 31.8(50) | 29.6(33) | 30.9(18) | 28.2(12) | 30.0(20) | 31.3(4) |

제2절 기혼여성의 자녀양육 행태

1.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2014년 조사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표 14>와 같다. 우선 연령을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를 제외한, 성북구 정릉3동과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는 40대 이상이 과반수이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는 40대가 전체 기혼여성의 65.7%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밀집 현상이 기혼여성 층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30대가 전체의 48.1%를 차지하여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젊은 층의 기혼여성이 많이 거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별 분포는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표본의 연령이 자연 증가하여 2014년 2차 조사 표본의 연령이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월 가구소득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이 34.5%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이 2.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익산시 영등2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고르게 높게 분포되었는데 특히 300만원 이상의 경우 전체의 82.1%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78.4%가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이다.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세 지역 중 소득구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하여 1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비율이 증가하여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2013년 1차 조사에는 충주시 소태면이었는데, 2014년 2차 조사결과는 성북구 정릉3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은 충주시 소태면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8.6%로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교육수준은 충주시 소태면이 고등학교(42.9%)인데 비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은 대학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2013년 1차 조사와 동일하다. 취업여부의 경우는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 취업상태인 경우가 많았다(85.7%). 성북구 정릉3동은 56.4%, 익산시 영등2동은 53.4%로 세 지역 모두 50%가 넘는 기혼여성이 직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두 지역은 거의 차이가 없고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만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각 지역별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각각 성북구 정릉3동 10.9%, 익산시 영등2동 5.9%, 충주시

소태면 2.9%였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만 감소하였고 다른 두 지역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가구가 증가하였다. 세 지역 모두 자녀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2명 이상의 다자녀 비율이 다른 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단위: %, 명)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연령 | | | | | | |
| 20~24세 | 2.0 | - | 2.9 | 1.1 | 0.8 | 4.8 |
| 25~29세 | 6.9 | 5.1 | 8.6 | 4.3 | 4.9 | 11.9 |
| 30~34세 | 20.8 | 21.1 | 11.4 | 20.2 | 20.0 | 7.1 |
| 35~39세 | 14.9 | 27.0 | 11.4 | 19.1 | 30.2 | 14.3 |
| 40~44세 | 26.7 | 30.8 | 37.1 | 27.7 | 31.0 | 31.0 |
| 45~49세 | 28.7 | 16.0 | 28.6 | 27.7 | 13.1 | 31.0 |
| 가구소득 | | | | | | |
| 100만원 미만 | 5.0 | 2.1 | 2.9 | 3.2 | - | 14.3 |
| 100~200만원 미만 | 10.9 | 2.6 | 14.3 | 12.8 | 5.7 | 23.8 |
| 200~300만원 미만 | 22.8 | 13.2 | 34.3 | 25.5 | 15.9 | 14.3 |
| 300~400만원 미만 | 18.8 | 34.5 | 14.3 | 18.1 | 28.2 | 16.7 |
| 400~500만원 미만 | 16.8 | 20.4 | 17.1 | 14.9 | 28.2 | 11.9 |
| 500만원 이상 | 25.7 | 27.2 | 17.1 | 25.5 | 22.0 | 19.0 |
| 교육수준 | | | | | | |
| 초등학교 이하 | 0.0 | 0.4 | 8.6 | - | 0.4 | 19.0 |
| 중학교 | 6.9 | 0.8 | 25.7 | 10.6 | 1.2 | 21.4 |
| 고등학교 | 45.5 | 32.9 | 42.9 | 43.6 | 39.3 | 47.6 |
| 대학 이상 | 47.5 | 65.8 | 22.9 | 45.7 | 59.0 | 11.9 |
| 취업 여부 | | | | | | |
| 예(취업) | 56.4 | 53.4 | 85.7 | 56.4 | 52.2 | 76.2 |
| 아니오 | 43.6 | 46.6 | 14.3 | 43.6 | 47.8 | 23.8 |
| 자녀수 | | | | | | |
| 0명 | 10.9 | 5.9 | 2.9 | 8.5 | 4.5 | 4.8 |
| 1명 | 26.7 | 16.9 | 11.4 | 26.6 | 13.9 | 11.9 |
| 2명 | 45.5 | 64.1 | 42.9 | 50.0 | 69.8 | 47.6 |
| 3명 | 13.9 | 11.8 | 28.6 | 12.8 | 10.6 | 26.2 |
| 4명 이상 | 2.0 | 1.2 | 14.3 | 2.1 | 1.2 | 9.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명) | (101) | (237) | (35) | (94) | (245) | (42) |

주: 2014년 익산시 영등2동의 월가구소득은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수치이며(N=235) 취업 여부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한 수치임(N=236).

2.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향후 자녀계획

조사에 응답한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는 아래 <표 15>와 같다. 우선, 조사지역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2.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가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전 지역에서 거의 1:1 수준이나 남아가 약간 많았다.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남아와 여아의 비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더욱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현존자녀수 | | | | | | |
| 남자 | 0.9 | 0.9 | 1.2 | 1.0 | 1.0 | 1.1 |
| 여자 | 0.9 | 0.9 | 1.2 | 0.9 | 0.9 | 1.0 |
| 계 | 1.7 | 1.9 | 2.4 | 2.0 | 2.0 | 2.3 |
| 이상적인 자녀수 | 2.7 | 2.6 | 2.4 | 2.6 | 2.6 | 2.7 |

이상적인 자녀수의 경우는 2.4~2.7명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2014년에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가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감소한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은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1차 조사에서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존자녀수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존자녀수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인 반면, 충주시 소태면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6>은 추가출산계획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존자녀수와의 차이가 가장 없었던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는 5.9%에 불과한 반면,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약 20%가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 여부

(단위: %, 명)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계획 있음 | 19.6 | 16.6 | 5.9 | 79.8 | 89.0 | 92.9 |
| 계획 없음 | 87.2 | 83.0 | 94.1 | 19.1 | 9.4 | 2.4 |
| 잘 모름 | 2.2 | 0.4 | - | 1.1 | 1.6 | 4.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명) | (92) | (235) | (34) | (94) | (245) | (42) |

3. 자녀 양육

기혼여성 가구의 양육 관련 사항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만 조사하였다. 아래 〈표 17〉에 따르면, 2014년 자녀가 있는 비율은 성북구 정릉3동 42.6%, 익산시 영등2동은 51.9%, 충주시 소태면은 45.7%으로 나타났다.

〈표 17〉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단위: %, 명)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0명 | 57.4 | 48.1 | 54.3 | 56.4 | 49.8 | 53.7 |
| 1명 | 23.8 | 26.2 | 22.9 | 29.8 | 20.0 | 22.0 |
| 2명 | 16.8 | 21.9 | 17.1 | 11.7 | 26.1 | 17.1 |
| 3명 이상 | 2.0 | 3.8 | 5.7 | 2.1 | 4.1 | 7.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명) | (101) | (237) | (35) | (94) | (245) | (41) |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주 조력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양육을 돕는 주 조력자가 따로 없거나 친조부모가 주 조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친조부모보다는 외조부모의 육아 도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는 주 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가 클수록 조력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다양한 주 조력자

가 존재하였는데, 친조부모의 도움이 외조부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인 것인지 물리적인 위치 때문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조사지역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주 조력자

(단위: 명)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 자녀 |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넷째 자녀 |
| 성북구 정릉3동 | | | | | | |
| 없음 | 29 | 13 | 2 | 38 | 13 | 3 |
| 친조부모 | 6 | 2 | - | 2 | - | - |
| 외조부모 | 7 | 4 | - | 1 | - | - |
| 기타 | 1 | - | - | - | - | - |
| 계 | 43 | 19 | 2 | 41 | 13 | 3 |
| 익산시 영등2동 | | | | | | |
| 없음 | 83 | 45 | 8 | 111 | 69 | 10 |
| 친조부모 | 16 | 6 | - | 6 | 3 | - |
| 외조부모 | 14 | 3 | - | 4 | 2 | - |
| 친가친인척 | 2 | 1 | - | 1 | - | - |
| 외가친인척 | 5 | 3 | - | 1 | - | - |
| 베이비시터 | 1 | - | - | - | - | - |
| 기타 | 2 | 2 | - | - | - | - |
| 계 | 123 | 60 | 8 | 123 | 74 | |
| 충주시 소태면 | | | | | | |
| 없음 | 8 | 2 | - | 16 | 8 | 3 |
| 친조부모 | 8 | 6 | 2 | 1 | - | - |
| 외조부모 | | | | 2 | 2 | - |
| 계 | 16 | 8 | 2 | 19 | 10 | 3 |

주: 가구 내 어린 자녀 순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첫째 자녀가 가장 어린 자녀임.

조사응답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 및 서비스는 〈표 19〉와 같다. 비교적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보육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의 경우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익산시 영등2동의 기혼여성이 가장 많고, 성북구 정릉3동, 충주시 소태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 자녀일수록 이용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이용시설 및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 자녀 |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넷째 자녀 |
| 성북구 정릉3동 | | | | | | |
| 직접돌봄 | 17 | 1 | - | 14 | - | - |
| 국공립어린이집 | 16 | - | - | 8 | 2 | - |
| 민간어린이집 | 18 | - | - | 8 | 6 | - |
| 가정어린이집 | 1 | - | - | - | - | - |
| 유치원 | 1 | - | - | 1 | 1 | 1 |
|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육) | - | 6 | - | 4 | 1 | - |
|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 - | 1 | 1 | - | 2 | 2 |
| 학원 | 11 | 4 | - | 9 | 4 | 3 |
| 계 | 64 | 12 | 1 | 44 | 16 | 6 |
| 익산시 영등2동 | | | | | | |
| 직접돌봄 | 24 | - | - | 23 | - | 1 |
| 국공립어린이집 | - | - | - | 5 | 3 | - |
| 민간어린이집 | 25 | - | - | 21 | 15 | - |
| 가정어린이집 | 17 | - | - | 15 | 9 | - |
| 직장어린이집 | - | - | - | 1 | 1 | - |
| 유치원 | 42 | - | - | 26 | 17 | 3 |
| 지역아동센터 | - | - | - | - | 1 | - |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 - | - | - | 1 | - | - |
|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육) | 6 | - | 1 | - | 2 | 1 |
|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 22 | 17 | - | 20 | 19 | 3 |
| 학원 | 44 | 37 | 1 | 14 | 39 | 7 |
| 기타 | 12 | 3 | 1 | 25 | - | - |
| 계 | 192 | 57 | 3 | 151 | 106 | 15 |
| 충주시 소태면 | | | | | | |
| 직접돌봄 | 1 | - | - | 5 | - | - |
| 국공립어린이집 | 7 | - | - | 3 | 5 | 1 |
| 민간어린이집 | - | - | - | 1 | 1 | - |
| 유치원 | 6 | - | - | 3 | 1 | - |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 - | 1 | - | 1 | 1 | - |
|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육) | 9 | - | - | 6 | 2 | 1 |
|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 - | 2 | - | 3 | 2 | 1 |
| 학원 | - | 1 | 1 | 2 | - | - |
| 기타 | - | - | - | - | - | - |
| 계 | 23 | 4 | 1 | 24 | 12 | 3 |

주: 가구 내 어린 자녀 순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첫째 자녀가 가장 어린 자녀임.

자녀 출산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녀의 양육비용이다. 자녀별 평균 양육비용은 성북구 정릉3동의 경우 큰 차이 없이 45~46만원으로 나타났고,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두 번째 자녀에게 가장 많은 양육비가 지출되었으며,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는 세 번째 자녀에게 가장 많은 양육비가 지출되었다(표 20 참조). 지역별 양육비의 평균을 살펴보면 익산시 영등2동이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가 가장 적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3년 1차 조사와 동일하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충주시 소태면의 평균 자녀양육비용은 감소한 반면, 성북구 정릉3동과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는 증가하였다.

〈표 20〉 조사지역별 기혼여성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별 총 양육비용 평균

(단위: 만원, 명)

| 구분 | 2014년 | | | 2013년 | | |
|-------|----------|-----------|----------|----------|-----------|----------|
|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성북구 정릉3동 | 익산시 영등2동 | 충주시 소태면 |
| 1명 | 46.0(43) | 49.4(123) | 23.9(16) | 40.3(18) | 50.4(36) | 34.7(9) |
| 2명 | 45.0(19) | 52.8(61) | 18.3(8) | 33.9(10) | 43.9(62) | 25.1(6) |
| 3명 | 45.5(2) | 44.8(9) | 24.0(2) | 40.0(1) | 33.5(10) | 18.7(2) |
| 전체(명) | 45.5(64) | 49.0(193) | 22.1(26) | 37.5(29) | 45.1(108) | 29.4(17) |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 연구 주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출산 분야 연구는 미혼자의 경우 만혼화 현상에 초점을 두었고, 이성교제 실태를 2014년에 추가로 다루었다. 최근 정책적으로 미혼남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만혼화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동안의 연구가 탐색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적절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판단된다.

2015년에는 연구 주제를 확대하여 미혼자의 부모와 동거 또는 주거 독립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국사회가 전통적 가족주의의 틀 속에서 혼인과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는 사례 또는 경향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과 연구는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성의식과 이성 간의 동거 실태 또한 충분히 연

구되지 않고 있다. 이성교제, 혼전 동거는 제도적 혼인 및 출산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 2015년에는 돌봄 자원의 동원형태에 초점을 둘 것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원 등의 시설(기관)이용 뿐만 아니라, 부모 이외의 혈연 비혈연 돌봄자원의 활용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돌봄의 형태가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인적자원의 동원 가능성 등에 따라서 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층에 따른 돌봄형태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런 차이가 개인이나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면, 우리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추적조사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인 기초 분석을 토대로, 심층 분석을 위한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혼남녀의 이성교제와 성관계 및 의식에 대한 연구는 혼인 및 출산 행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특히 취업여성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 행태(현상) 분석에 중심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직장에서 작동하는 여성차별적 요소에 대하여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 윤리와 노동규범이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고, 이것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추적조사는 대규모 일반조사에서 밝히기 어려운 심층의 차원과 관련되는 연구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방법론적 측면

2014년에 고령사회 분야에서 질적방법론을 적용하여, 중고령자의 배우자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출산 분야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아직 질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지역추적조사 연구는 체계적인 표본설계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조사와 다르다. 따라서 본 조사 자료를 경험적 통계분석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교한 질적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사례연구(case study) 기법의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례연구는 무엇이 ‘사례’인가에 대한 고찰부터,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비교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개 지역을 곧 1개의 사례로 본다면, 지역적 맥락과 지역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관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 어떻게 개별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하는지 관심을 가져

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요인 간의 맥락적 효과는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맥락적 효과는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기회구조, 문화적 구조, 정책 인프라, 공동체적 특성 등이 지역의 맥락을 형성하고, 개별 행위자는 이런 맥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과 구조분석은 일반 사회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기 쉽지 않다. 오히려 사례연구나 질적 방법론을 통하여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오영희·정경희·이삼식·이소영·오신휘·임지영·김경래·송리라(2013).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정경희·이소영·오신휘·김경래·임지영(2014).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4). 2013년 생명표, 2014.12.
- 통계청(2015). 201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15.2.